차 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제 1 과

김일성장군의 노래

리 찬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이십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이 노래의 가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담아 감동적으로 읊어야 합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한개 절씩 이어가며 큰소리로 천천히 읊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그리운, 빛나는, 만주벌, 밀림의, 긴긴 밤아, 은인, 위대한

❖ 가사의 매절의 세번째, 네번째 줄을 곱게 써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장군— ① 큰 무력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② 힘이 매우 센 사람을 이르는 말.

압록강—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사이에 흐르는 강.

애국자— 자기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사람.

은인— 고마운 사람이라는 말.

일반적으로 자기를 크게 도와준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나의 은인이야.》, 《은인을 잊어서야 안되지.》라고 말합니다.

- 그러면 교과서문장에서 《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이란 무슨 뜻일가요?
- 《은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 어울리는 말에 줄을 그으면서 뜻을 알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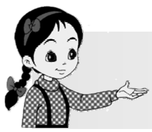
장백산	눈바람
압록강	긴긴 밤
피어린	빨찌산
만주벌	굽이굽이
밀림의	자욱
만고의	줄기줄기



내용을 알아내자요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20년동안이나 일제놈들을 쳐부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길을 헤쳐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업적을 어떻게 노래하였습니까?

❖ 이 노래의 후렴부분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을 어떻게 노래하였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다음물음에 똑똑한 발음으로 대답해보세요.

- **김일성**장군님은 어떤분이십니까?
- 학생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어떤 노래들을 알고있습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다음단어들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애국자, 백두산

례 : 꽃다발— 영옥이는 학교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 자기가 지은 글을 곱게 다듬어보세요.

- 제시된 단어가 들어갔는가.
- 틀리게 쓴 글자가 없는가.



1. 이 노래의 가사를 외우고 소리내여 읊어보세요.
2. 이 가사를 속으로 읽으면서 학습장에 곱게 한번 써보세요.
3. 《은인》과 같이 글자 《은》이 첫 글자로 들어가는 두 글자단어를 3개이상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넣어 각각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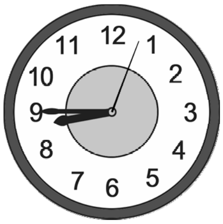
꼭 새겨두자요

김일성장군님은 일제를 때려부시고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주시였습니다. 이 가사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받드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흠모의 마음이 담겨져있습니다.

이야기

제 2 과

귀중한 45 분



수학시간이였습니다.

용이는 똑바로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있었습니다.

《뻿쫑— 쪼르륵…》

어디선가 새가 우짖었습니다. 용이는 창밖을 살그머니 내다보았습니다. 복숭아나무가지에 고운 새 한마리가 앉아 꼬리를 달싹거리고있었습니다.

(야! 저게 무슨 새일가?)

새는 나무가지를 요리조리 옮겨앉으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머리를 갸웃거리며 교실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까만 눈을 대룩대룩 굴리기도 하였습니다.

용이는 살짝 발을 굴렀습니다. 새는 깜짝 놀라 포르릉 날아갔습니다. 이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잘 알겠습니까?》

《예!》

동무들은 씩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영선학생, 용이학생, 칠판에 나와 풀어보세요.》

용이는 자신있게 칠판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백묵을 들던 용이는 그만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195 덜기 146이라… 아니 다섯에서 여섯을 어떻게 더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사이 영선이는 답을 척 써놓고 들어갔습니다. 용이의 코등에는 작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돋았습니다.

《용이학생, 들어가세요.》

용이는 빨개진 얼굴을 푹 숙이고 제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첫째가는 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이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날 배운것은 그날로 꽉꽉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언제나 똑바로 앉아서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나서 오늘 배운것을 다시 설명하시였습니다.

용이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때문에 다른 문제를 더 배우지 못하고 되풀이하게 되였으니까요.

창밖에서는 고운 새의 우짖음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용이는 한번도 헛눈을 팔지 않고 똑바로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들었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발음법

발음법이란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누구나 꼭 같이 읽도록 약속해놓은것을 말합니다.

글을 읽을 때 저저마다 다르게 읽으면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을수 없게 됩니다.

례를 들어 《옛말》은 《옌말》로 읽어야지 《옏말》로 읽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반드시 발음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말 발음법에는

- 이어내기 례 : 창밖을〔창바끌〕
- 된소리되기 례 : 목소리〔목쏘리〕
- 거센소리되기 례 : 씩씩하게〔씩씨카게〕
- 끊어내기 례 : 옷안〔오단〕 등이 있습니다.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앉아, 우짖었습니다, 옮겨앉으며, 씩씩하게, 없었습니다, 코등에는, 내돋았습니다, 되풀이하게, 창밖에서는, 헛눈을 팔지 않고

❖ □안에 알맞는 글자를 넣어보세요.

꼬리를 달□거리고있었습니다, 살□ 발을 □렸습니다, 칠판 앞□으로 □어나갔습니다, 눈이 □그래졌습니다, 다□에서 여□을 어□게 더나, 답을 써□고, 용이는 부□러웠습니다, 설명을 □담아들었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우짖다— 새들이 울어 지저귀다.

례: 종달새 우짖는 새봄이 왔습니다.

재롱— 귀엽게 노는것.

❖ (___)안에 밑줄 그은 단어와 비슷한 말을 써넣으세요.

살그머니 내다보았습니다. (__________)

요리조리 옮겨앉았습니다. (_____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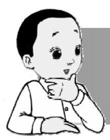
눈을 대룩대룩 굴리기도 하였습니다. (__________)

새가 포르릉 날아갔습니다. (__________)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돋았습니다. (__________)

❖ 다음글을 통하여 밑줄 그은 단어의 뜻을 알아보세요.

- 학생의 기본**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입니다.
- 영수는 자기때문에 학급이 학과경연에서 뒤자리를 차지하던 지난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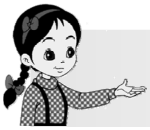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용이의 코등에는 작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돋았습니다.》의 문장을 통해 용이의 어떤 마음을 알수 있습니까?

❖ 선생님은 오늘 배운것을 왜 다시 설명하였습니까?

❖ 창밖에서 고운 새의 우짖음소리가 또 들려왔을 때 용이는 왜 헛눈을 팔지 않았을가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말을 할 때에는 남이 쓴것을 그대로 외우지 말고 자기 말로 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 용이가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는 내용.
- 용이가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내용.
- 학생이 공부시간에 용이처럼 딴 생각을 했던 잘못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다음단어를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우짖다, 내돋다, 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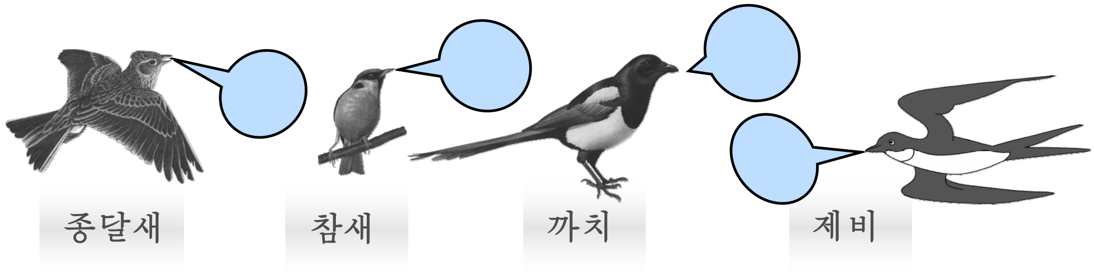
❖ 수업시간 규률을 잘 지키지 않는 동무에게 하고싶은 말을 두 문장으로 지어보세요.



1. 45분 수업시간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문장으로 말하고 학습장에 쓰세요.

2. 새들이 우짖는 소리를 찾아쓰세요.

깍깍, 지종지종, 짹짹, 지지배배



3. 어울리는 말에 줄을 그어보세요.

꼬리를	둥그래지다
재롱을	없다
깜짝	부리다
눈이	놀라다
알수가	달싹거리다

4. 다음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글자들을 읽으며 곱게 써보세요.

- 똑바로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 코등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돋았습니다.
- 헛눈을 팔지 않고 설명을 귀담아들었습니다.



꼭 새겨두자요

45분 수업시간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여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시

제 3 과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시)

어제도 오늘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하루는 스물네시간
시간의 흐름에는
변함이 없건만

아버님 주무시는 방
책상우에 놓인 시계
무엇에 쫓기우는가
바늘은 급히도 달아나네

밤은 깊었으나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는 아버님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니
아버님 쉬실 시간
한초한초 줄어만 드는구나

안타까운 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시계야 너라도 좀 더디게 가다오
아버님 쉬실 때만이라도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시에서는 한줄로 된 부분을 행이라고 하고 3~4개 행들이 모인 덩어리들을 련이라고 합니다. 한개 련씩 다른 동무들과 이어서 큰소리로 읊어보세요.

❖ 우리 말에는 읽을 때와 쓸 때 꼭 같은것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말들을 본문에서 찾아 읽으면서 이런 점을 지켜서 써보세요.

놓인, 쫓기우는가, 급히도, 길었으나, 들어오시지 않는, 사정없이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변함이 없다— 달라지거나 딴것으로 바뀌지 않다.

주무시다— 《자다》의 높임말.

- 누구에게 《주무시다》라는 말을 쓸가요?
- 어떤 높임말들이 있을가요?

먹다— ☐

주다— ☐

태여나다— ☐

죽다— ☐

쫓기우다— 무엇이 따라올 때 잡히지 않으려고 달아나다.

사정없이— 남의 형편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 **상 식** 우리 말에는
>
> 높임말, 보통말, 낮춤말이 있어요.
>
> (높임말) 자기보다 웃사람에 대하여 쓰는 말.
>
> (보통말) 자기 동무나 아래사람에 대하여 쓰는 말.
>
> (낮춤말) 낮춰서 대해야 할 사람에 대하여 쓰는 말.



내용을 알아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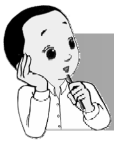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왜 밤이 깊어도 들어오시지 않으시였을가요?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밤이 깊도록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떤 시간이 줄어듭니까?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쉬실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한초가 한시간 되여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다음단어들을 넣어 각각 짧은글을 지으세요.

시계, 더디다

❖ 시의 마지막련의 내용을 가지고 세 문장으로 된 글을 지으세요.



곱게 쓰자요

❖ 아래의 글자들중에서 세운글자와 눕힌글자를 찾아보세요.

사	정	없	이

곱	히	도

❖ 우의 글자들중에서 받침있는 세운글자와 받침없는 세운글자들은 쓸 때 무엇이 다릅니까? 학습장에 쓰고 말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글씨쓰기규범에 맞게 세번씩 학습장에 곱게 쓰세요.

스물네시간, 없건만, 쉬실 때, 한초

❖ 자기가 쓴 글씨를 살펴보세요.

- 글자의 크기
- 글자의 모양
- 글자의 자리



1. 이 시를 외우고 읊어보세요.
2. 다음문장들에서 잘못된 말을 웃사람에게 쓰는 말로 고쳐보세요.

- 할아버지, 밥먹으라.
- 아버지, 잘 잤나?
- 할머니, 내가 갖다줄게요.
- 이모 언제 왔나?
- 우리 엄마 집에 있어요.
- 삼촌 먼저 주고 우리도 먹자.



꼭 새겨두자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아버님 주무시는 시간만이라도 한초가 한시간 되여주기를 바라는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지니시였습니다.

이야기

제 4 과

나비와 수닭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고운 꽃들이 활짝 핀 아름다운 동산에 노랑나비와 알락나비, 범나비네가 살고있었습니다. 나비들은 날마다 꽃밭에서 꿀떡도 따고 꽃가루도 뿌려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심술사나운 수닭놈이 꽃동산에 달려들었습니다. 수닭놈은 갈구리같은 발톱으로 곱게 핀 꽃들을 마구 짓뭉개버렸습니다.

나비네 동무들은 너무 분해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애들아, 수닭놈을 당장 쳐없애자.》

노랑나비가 격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닭놈을 어떻게 당해내겠니. 우리에겐 사나운 부리도 발톱도 없지 않니.》

범나비가 근심에 싸여 말하였습니다.

《힘만 가지고 이기는게 아니야. 우리에겐 훌륭한 날개가 있어.》

노랑나비는 수닭놈과 싸울 결심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노랑나비는 동무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수닭놈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노랑나비가 푸른 가지를 길게 드리운 버드나무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수닭놈이 어슬렁어슬렁 꽃밭으로 기여들었습니다.

《이놈아, 우리 동산을 해치려고 또 달려들지, 어림도 없다. 오늘은 네놈을 그냥두지 않을테다.》

《뭐, 그냥두지 않겠다구… 그럼 어쩔테냐?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감히 어따대고… 오늘은 네놈까지 잡아먹을테다.》



수닭놈은 당장 요정낼듯 발톱을 세워 노랑나비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노랑나비는 살짝 날아올랐다가 풀밭에 내려앉았습니다. 성이 독같이 난 수닭놈은 커다란 날개로 세찬 바람을 일구며 노랑나비를 따라왔습니다.

《저놈을 그저… 잡으면 발기발기 찢어놓고말테다.》

수닭놈이 기를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노랑나비는 이번에도 살짝 빠져나왔으나 그만 한쪽 날개를 상했습니다. 그러나 노랑나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노랑나비는 수닭놈과 끝까지 싸울 결심을 품고 벼랑턱으로 날아갔습니다.

수닭놈은 금방 숨이 넘어갈듯 헐떡거리면서 노랑나비를 쫓아왔습니다.

노랑나비의 한쪽 날개가 수닭놈의 부리에 닿았습니다.

《요놈!》

수닭놈은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며 노랑나비를 와락 덮쳤습니다. 그 순간 노랑나비는 하늘로 솟구치고 수닭놈은 아찔한 벼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정없이 떨어져내리던 수닭놈은 굳은 벼랑의 이쪽저쪽에 대가리를 짓찧으며 곤두박혔습니다.

수닭놈과 싸워 이긴 노랑나비는 흥겹게 노래부르며 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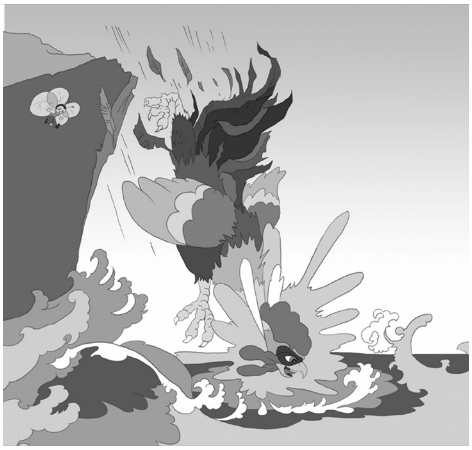
《노랑나비가 온다!》

《노랑나비야, 잘 싸웠어!…》

동무들이 모두 칭찬하며 노랑나비를 축하해주었습니다.

《애들아! 원쑤는 꼭 힘만으로 이기는게 아니야. 자기 힘을 믿고 지혜를 모아 용감히 싸우면 그 어떤 원쑤도 쳐부실수 있어!》

노랑나비의 말은 온 동산에 힘있게 울려퍼졌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수닭, 꽃밭에서, 꽃동산에, 짓뭉개버렸습니다, 격해서, 이튿날, 내려앉았습니다, 독같이, 찢어놓고말테다, 곤두박혔습니다

❖ 본문에 나오는 수닭놈과 노랑나비, 동무들이 하는 말들에 끊기, 높낮이, 힘주기표식을 하고 옆동무와 맞추어보세요.

례: 노랑나비— 《애들↗아,// 수닭놈을 당장 쳐없애→자.》///

범나비— 《그런데/ 수닭놈을 어떻게 당해내겠↘니.//

우리에겐 사나운 부리도 발톱도 없지 않↗니.》///

읽기표식:	긴끊기 ///	높낮이 ↗ ↘
	중간끊기 //	힘주기 ·
	짧은끊기 /	평평하게 →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꽃동산— 꽃들이 많이 피여난 자그마한 동산.

심술— 남이 잘되는것을 싫어하는 못된 마음.

심술사납다는 말은 심술이 바르지 못하고 못되다는 뜻입니다.

바래움— 떠나는 사람을 바래우는것.

- 《바래움》과 뜻이 반대되는 말에는 어떤것이 있을가요?

부리— 새나 짐승의 주둥이. 끝이 뾰족하고 뿔과 같이 굳은 물질로 되여있다.

벼랑— 깎아세운듯이 험하게 생긴 언덕.



☐	벼랑	을 톺아오르다.
☐		에서 떨어지다.
☐		이 보이다.

어슬렁어슬렁— 사람이나 짐승이 느리게 걸어다니는 모양.

❖ 어울리는 말에 줄을 그어보세요.

성큼성큼	아기
팔랑팔랑	젊은이
아장아장	곰
어슬렁어슬렁	나비

❖ 밑줄 그은 자리에 비슷한 말을 써넣으세요.

발기발기(어떤것을 여러 쪼각으로 길게 찢는 모양.) ________

요정내다(결판을 내여 끝장을 보다.) ________

기를 쓰다(있는 힘을 다해서 몹시 애쓰다.) ________

곤두박히다(대가리가 밑으로 가게 거꾸로 떨어지다.) ________

내용을 알아내자요

❖ 아름다운 동산에 누구들이 살고있습니까?

❖ 수닭놈의 심술사나운 행동에 범나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 수닭놈은 자기의 무엇을 믿고 우쭐거리며 달려들었습니까?

❖ 노랑나비는 어떤 지혜로 수닭놈을 요정냈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수닭은 왜 꽃동산을 짓뭉개버렸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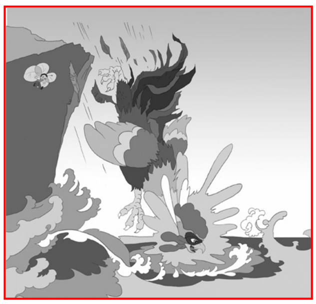
❖ 수닭놈은 나비보다 몸집도 크고 힘도 센데 왜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가요?

❖ 노랑나비가 수닭놈과 싸워 이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노랑나비는 수닭놈을 끌고다닐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가요? 그림을 보면서 노랑나비의 속생각을 써보세요.





❖ 수닭놈은 꽃동산의 꽃들을 마구 짓뭉갰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놈입니까? 아래의 말들을 넣으면서 그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사납다, 갈구리같은 발톱, 으르렁거리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짓뭉개다》에서처럼 《짓》이 앞에 붙어 이루어진 말들을 5개 찾고 그중 두개로 짧은글을 지으세요.

2. 다음문장을 띄여쓰기에 맞게 고쳐 쓰세요.

사정없이 떨어져 내리던 수닭놈은 굳은벼랑의 이쪽 저쪽에 대가리를 짓찧으며 곤두박혔습니다.

띄여쓰기

띄여쓰기란 문장에서 단어마다 사이를 두고 쓰는것을 말합니다. 우리 글을 쓸 때에는 단어들을 다 붙여쓰지 않고 단어마다 조금씩 사이를 띄여주고 씁니다.

례 : 수닭놈과 싸워이긴 노랑나비는 흥겹게 노래부르며 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띄여쓰기는 글자 한자 너비만큼 사이를 둡니다. 띄여쓰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규범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꼭 새겨두자요

힘이 세다고 언제나 이기는것은 아닙니다.

자기 힘을 믿고 지혜를 모아 용감히 싸우면 그 어떤 원쑤도 이길수 있습니다.

일기

제 5 과

내 힘으로 한 숙제

5월 18일 월요일 개임

나는 오늘 저녁 한시간동안이나 국어숙제장과 씨름을 하였다.

오늘 국어숙제는 단어 3개를 가지고 각각 짧은글을 짓는것이였다. 처음 2개 단어는 제꺽 글을 지었으나 마지막단어인 《망설이다》에 가서 딱 걸렸다. 한참 머리를 기우뚱거리다가 학습장을 뒤져 단어 《망설이다》의 뜻은 《어떤 일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재다.》라고 다시한번 익혔다.

그런데 글짓기는 좀처럼 생각나지 않고 막연하기만 하였다. 그래서 콤퓨터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고있는 누나에게 대달랠가말가 생각하며 연필방아만 찧었다.



골살을 찌프리고 천정만 바라보는데 나의 머리속에는 동무들이 저저마다 손을 들고 선생님앞에서 자랑스럽게 자기글을 읽는 모습이 떠올랐다.

(어떤 때 망설이게 되더라?…)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자 내가 한 행동을 글에 담으면 될것 같았다.

나는 학습장에 《힘든 숙제문제를 놓고 누나에게 대달랠가말가 망설이던 나는 공부는 제힘으로 해야만 제것이 된다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어이 혼자서 풀고야말았다.》라고 써넣었다.

정말 내 힘으로 숙제를 하고보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어머니도 빙그레 웃으시며 칭찬해주셨다. 래일 선참으로 일어나 대답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거뿐하다. 나는 앞으로도 숙제를 꼭꼭 내 힘으로 하겠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짓는것이였다, 기우뚱거리다, 뒤져, 뜻은, 할것인가, 익혔다, 막연하다, 앉아, 두드리고있는, 대달랠가, 골살을, 찌프리다, 읽는, 써넣었다, 빙그레, 거뿐하다, 앞으로도

❖ □안에 알맞는 글자를 넣어보세요.

□은글을 짓는것이였다, 국어숙제장과 □□을 하였다, 곰□터앞에 □아, 생각나지 □고, 연필방아만 □었다, 곰□히 □□해보니, 기쁘기 □지□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단 어

단어란 뜻을 나타내는 말마디입니다.

례를 들어 《학생》이라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단어는 사람이나 물건, 동물이나 식물, 움직임이나 모양 등 수많은 대상들의 뜻을 말마디로 나타냅니다.

씨름하다— 《씨름경기》, 《씨름선수》에서 《씨름》은 무슨 말입니까?

교과서에서 《국어숙제장과 씨름했다》는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과서에서와 같은 뜻으로 이 단어를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 □안에 비슷한 말을 찾아 넣어보세요.

막연하다— 똑똑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 □

(기쁘기) 그지없다—끝이 없다. □

골살(을 찌프리다)—이마살. □

- 어떤 때 골살을 찌프리게 됩니까? 다음 짧은글을 보면서 옳게 쓴것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ㄱ. 나는 보고싶던 누나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골살을 찌프렸다.

  ㄴ. 옥이는 마지막문제가 풀리지 않아 골살을 찌프렸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일기는 소학교 학생이 쓴것입니다.
이 학생은 무슨 내용으로 일기를 썼습니까?

❖ 일기는 학교에서 있은 일만 가지고 쓰는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하루생활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것, 깊이 생각했던것을 씁니다.
본문에서 학생은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썼습니까?

❖ 일기는 자기가 보는 글인것만큼 솔직하게 써야 합니다. 본문에서 학생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나타낸 문장들은 어느것입니까?

❖ 이 일기에서는 문장의 끝을 《하였다》, 《않았다》, 《하겠다》고 썼는데 왜 《하였습니다》,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쓰지 않았을가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다음일기를 읽어보세요.

5월 19일 화요일 흐림

저녁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우산 두개를 들고 아버지마중을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우산을 드리고 오늘 5점맞은 자랑을 하고싶었습니다. 좀 기다리는데 빼스가 와 멋더니 아버지가 내리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우산을 펴주었습니다.

이때 빼스에서 할머니 한명이 또 내리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자기 우산을 씌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업다. 난 저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집과는 딴곳으로 갔습니다.

____

나는 아버지에게 《먼저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고 할머니를 집에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기특도 하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쑥스러워 그냥 《할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______ 집으로 발거름을 돌리였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렸고 내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 글에서 잘된 점은 무엇입니까?

❖ 틀린 글자를 고치고 밑줄을 친 곳에 생각해서 글을 넣어보세요.



곱게 쓰자요

❖ 단어쓰기

국어숙제

- 글자들의 모양, 크기, 위치를 잘 관찰하세요. 학습장에 쓰면서 익히세요.
- 다음단어들을 세번씩 곱게 쓰세요.
  짧다, 웃으시다, 곰곰히

❖ 문장쓰기

나는 앞으로도 숙제를

꼭꼭 내 힘으로 하겠다.

- 세운글자, 눕힌글자, 받침글자의 쓰기를 살펴보세요.
- 글줄에서 글자들의 높이와 너비를 살펴보세요.
- 학습장에 두번씩 쓰며 익히세요.



1. 다음단어들과 뜻같은말을 3개씩 찾아보세요.

   곰곰히, 망설이다

2. 이 과에 나오는 두 일기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3. 다음의 내용으로 일기를 쓰고 다듬어 완성하세요.
   - 동무를 도와준 내용
   - 영화나 책을 본 내용



꼭 새겨두자요

공부를 제힘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달라붙으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답니다.

동화

제 6 과

승냥이와 꿀단지

어느날 승냥이가 꿀벌네 집에서 꿀단지를 훔쳐냈습니다. 승냥이는 단지뚜껑을 열고 앞발을 들이밀어 꿀을 조금씩 찍어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해서는 아무리 먹어도 성차지 않았습니다.

승냥이는 꿀단지안에 대가리를 쑥 들이밀고 그안의 꿀을 단숨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참 야단입니다. 단지안에 들이민 대가리를 도무지 빼낼수가 없었으니까요. 대가리를 빼내려고 삐드럭거릴수록 꿀단지는 승냥이의 목을 더 바싹 조이는것이였습니다.

승냥이는 할수없이 사정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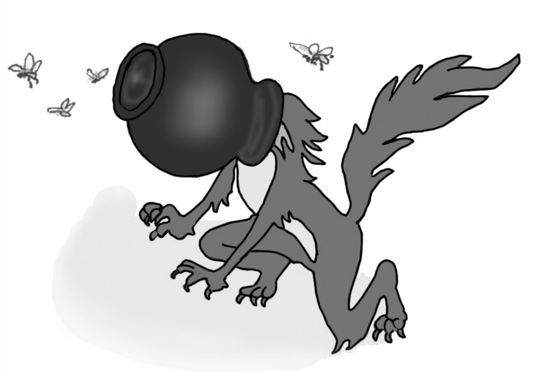
《꿀단지야, 내 잘못했으니 좀 놓아다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꿀단지가 승냥이의 말을 되받아 외우는것이였습니다. 승냥이는 약이 올라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네가 감히 나를 몰라보느냐? 죽여버리기 전에 어서 내 목을 놓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꿀단지도 맞받아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네가 감히 나를 몰라보느냐? 죽여버리기 전에…》



승냥이는 더욱 화가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무엇이 어째?》

꿀단지도 같이 소리쳤습니다.

《무엇이 어째?》

승냥이는 꿀단지를 강물에 빠뜨려죽이리라 마음먹고 강가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꿀단지를 잃은 꿀벌들까지 날아와 붕붕소리를 내며 승냥이의 목덜미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급해맞은 승냥이는 꿀단지를 뒤집어쓴채로 급히 강물에 뛰여 들었습니다.



《이놈의 꿀단지 이젠 죽어봐라.》

그러나 급해맞은것은 승냥이였습니다. 꾸르륵꾸르륵… 물이 단지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어푸… 어푸…》

물을 삼키며 허우적거리던 승냥이는 인차 뻣뻣해져 둥둥 떠내려가고말았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앞발을, 찍어먹어보았습니다, 그렇게나, 기막힌, 뻣뻣해져

❖ 본문에 나오는 승냥이의 말에 끊기, 높낮이, 힘주기표식을 하고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다음글을 통하여 밑줄 그은 단어의 뜻을 알아보세요.

-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원쑤놈들은 신천땅에서 어머니와

어린이들을 갈라놓고도 **성차지 않아** 그들의 머리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 우리 인민군대아저씨들은 적을 무찌르고 **단숨에** 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 상처입은 철수의 마음을 **도무지** 돌려세울수가 없었습니다.
- 순호는 참다못해 너무도 **화가 치밀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 우리 아버지는 아까부터 한자세로 앉아 글을 써서인지 갑자기 **목덜미**가 뻣뻣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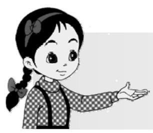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꿀단지안에 대가리를 쉽게 들이밀었던 승냥이는 왜 다시 대가리를 빼내지 못했을가요?

❖ 꿀단지가 승냥이의 말을 되받아 외웠다는 말은 무슨 뜻일가요?

❖ 꿀단지를 빠뜨려죽이겠다고 강물속에 뛰여드는 승냥이는 무엇을 모르고있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이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 이 과를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뻐드럭거리다》를 가지고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다음의 이야기로 제목을 달아 글을 지어보세요.

1. 승냥이가 착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2. 착한 짐승들은 힘을 합쳐 승냥이와 싸웁니다.
3. 승냥이는 어떻게 되였을가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꾸르륵꾸르륵》, 《어푸어푸》는 무엇을 생동하게 나타내는 말입니까?
2. 《꿀벌》로 시작해서 두 글자단어가 10개 되게 말끄리잇기를 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욕심이 많고 아는것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기행문

제 7 과

만경대를 찾아서

온 나라가 손꼽아 기다리던 태양절이 왔습니다.

우리들을 태운 뻐스는 마음의 고향 만경대로 씽씽 달렸습니다.

차창밖으로는 평양의 화려한 모습이 언뜻언뜻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은 노래를 부르며 차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느덧 뻐스는 만경대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만경대혁명사적관을 본 다음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

얼마나 와보고싶던 곳입니까.

우리들은 고향집을 주의깊게 돌아보았습니다.

처마낮은 초가집의 부엌안에는 많지 않은 그릇들과 금이 가면 때고 또 때여 본래의 색을 모르게 된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방안에는 농짝과 밑깨진 화로, 앉은책상과 벼루가 있으며 헛간에는 지게, 보습, 낫, 작두, 호미, 물레, 베틀 그리고 마당가에는 쭈그러진 독, 방치돌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적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일가분들의 고된 로동과 가난의 흔적을 말없이 보여주고있었습니다.

고향집에서 나온 우리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군사놀이를 하시며 왜놈칠 장수힘을 키우시던 군함바위도 보고 썰매바위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다음 만경봉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이 활짝 피고 소나무가 우거진 만경봉은 참으로 아름다왔습니다.

우리들은 만경봉에서 학습터, 씨름터, 샘물터, 구호나무를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높은 뜻이 어려있는 만경대는 보는것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직하리라 마음다지며 만경대를 떠났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글은 바로 읽어야 합니다

글을 읽는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글에 담겨진 내용을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을 바로 읽자면

▶ 우선 우리 말의 발음법을 정확히 지키면서 똑똑하게 읽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글자들을 거듭 반복하면서 읽거나 얼버무리지 말아야 하며 또 글자를 빠뜨리거나 없는것을 넣어서 읽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글의 내용에 맞게 끊기와 속도, 힘주기, 높낮이를 잘 지켜야 합니다.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만경대견학의, 곳입니까, 많지 않은, 헛간에는, 활짝, 높은 뜻이, 뜨겁게, 차창밖으로는, 부엌안에는, 그릇, 밑깨진, 지게, 낫, 베틀, 쭈그러진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손□아 기다리다, □려한 모□, 언□언□, □보고□던, 군□바□, 썰□바위, 복숭아□, 아□답다, 샘□터, 처마□은, □은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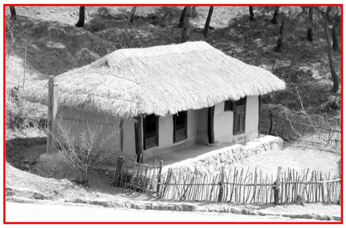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화려하다— 환하게 아름답고 곱다.

처마— 지붕을 씌운 집들에서 바깥쪽으로 나온 지붕의 한 부분.

초가집—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짚이나 풀 같은것으로 이은 집.



화로— 숯에 불을 피워서 그것을 담아놓는 그릇.



구호나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생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구호를 쓴 나무.

벼루—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먹을 갈아서 쓰는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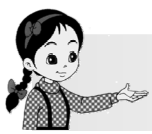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만경대를 찾은 학생들은 어떤 순서로 돌아보았습니까?

❖ 여러번 땐 물동이, 밑이 깨진 화로, 쭈그러진 독, 벼루, 앉은책상, 헛간에 있는 도구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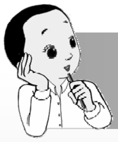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이 과의 내용을 차례차례 자기 말로 이야기해보세요.

❖ 만경봉학습터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습니까? 그 사연이 잘 안겨오게 말해보세요.

❖ 《군함바위》와 《썰매바위》는 왜 그렇게 이름을 달았을가요? 이 사적물에 깃든 이야기를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학생이 만경대를 돌아보고 느낀 점을 써보세요.



1. 《초가집》처럼 《집》이라는 말이 붙은 말들을 5개이상 찾아 보세요.

2. 다음말들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처마, 활짝, 견학

3. 다음글을 곱게 쓰세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꼭 새겨두자요

만경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과—7과)

1. 쓴것과 다르게 발음되는 글자에 밑줄을 긋고 바로 읽어보세요.

   굽이굽이, 력력히, 거룩한, 빛나는, 우짖었다, 코등, 내돋았다, 놓인, 수닭, 찢어놓고말테다, 짊일가, 들이밀어, 부엌안, 쭈그러진

2. 《애국자》처럼 《～자》로 끝나면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를 5개이상 찾아 써보세요.

3. 《만경대》로 시작하여 6개 단어로 말끄리를 잇되 마지막글자가 《봉》으로 끝나게 하세요.

4. 《나비와 수닭》에서 나비는 수닭을 어떻게 이겼을가요?

5. 다음물음에 대답하세요.

   - 욕심을 부리던 승냥이가 혼쌀이 나는 이야기들중에서 또 어떤것을 알고있습니까?
   - 승냥이와 같은 놈들은 꼭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6. 오늘도 전선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두문장으로 된 글을 지으세요.

이야기

제 8 과

원한의 상처자리

해방전 박봉재소년이 8살 나던 때였습니다. 봉재의 부모들은 배우고싶어하는 어린 아들을 어떻게 하나 공부시켜보려고 여기저기서 빚돈을 내여 봉재를 뒤늦게나마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어느날 수업시간이였습니다. 긴 칼을 찬 왜놈교장놈이 도수높은 안경알을 번뜩거리며 교실에 들어서더니 오늘부터는 매 학생들의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며 일체 조선말을 할수 없다고 지껄이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출석부를 펼치고 학생들의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장놈은 봉재의 차례가 되자 왜놈말로 불렀습니다. 봉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장놈은 또다시 안경알너머로 봉재를 쏘아보며 불렀습니다.

봉재가 그래도 대답하지 않자 교장놈은 《어서 이리 나와.》 하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봉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이 독같이 오른 교장놈은 미친듯이 봉재에게 달려들어 귀박죽을 잡아 비틀며 교탁앞으로 끌어내더니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며 마구 두들겨팼습니다.

《아직도 일본말로 이름을 안 댈테냐?》

교장놈은 쓰러진 봉재에게 이름을 한번 대보라고 지껄이였습니다. 어린 봉재의 가슴속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치솟아올랐습니다.

《박봉재, 내 이름은 박봉재이다!》

봉재는 조선말로 웨쳤습니다. 그러자 왜놈교장놈은 짐승의 울음소리같은 소리를 지르며 봉재를 칼집으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악착하기 그지없는 이 왜놈은 쓰러진 봉재의 두손목을 쇠줄로

꽁꽁 동여매가지고 질질 끌어다가 어두운 창고속에 던져넣었습니다. 창고에 갇히운 봉재의 두손목은 퉁퉁 부어오르고 살색이 시꺼멓게 죽어갔습니다. 나라없던 그 세월엔 아무리 억울하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여도 그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은 변했지만 그날에 박봉재소년의 손목에 새겨진 원한의 상처자리는 할아버지가 된 오늘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은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상처자리는 왜 없어지지 않나요?》

《응, 일본놈들이 세상에 있는 한 상처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단다. 너희들은 할아버지의 원쑤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고야말겠어요.》

이 말은 온 나라 어린이들이 다지는 복수의 결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어떻게 하나, 빚돈을, 뒤늦게나마, 지껄이는것이였습니다, 귀박죽을, 발길질을, 칼집으로, 갇히운, 잊어서는

❖ 다음문장에서 어느 글자에 힘주기를 해야 할가요? 힘주기표식(·)을 하고 읽어보세요.

《아직도 일본말로 이름을 안 댈테냐?》

《박봉재, 내 이름은 박봉재이다!》

《할아버지, 상처자리는 왜 없어지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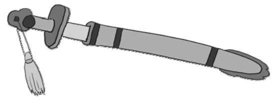
《너희들은 할아버지의 원쑤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빚— 후에 물어주기로 하고 남에게서 꾸는 돈이나 물건.

칼집— 칼날을 꽂아넣을수 있게 만든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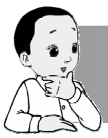


❖ 다음문장들에서 밑줄 그은 말들의 뜻을 알아 보세요. 앞뒤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 **성이 독같이 오른** 교장놈은 미친듯이 봉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 왜놈교장놈은 **짐승의 울음소리같은 소리**를 지르며
- **발길질**을 하며 마구 **두들겨팼습니다**.

❖ 다음문장에서 □안의 말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엇이 다를가요?

[꽁꽁] 동여매다, [질질] 끌어가다, [퉁퉁] 부어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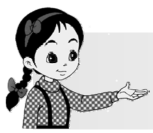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이야기는 어느때 어디에서 있은 일입니까?

❖ 교장놈은 왜 학생들의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부르도록 하였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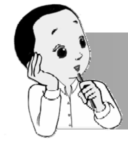
❖ 봉재는 왜 끝까지 자기 이름을 조선말로 불렀을가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봉재가 왜놈교장의 요구대로 자기 이름을 일본말로 불렀다면 어떻게 되였을가요? 그러면 봉재는 무엇을 잃게 됩니까?

❖ 봉재는 할아버지가 된 오늘날에까지 왜 원한의 상처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가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우리가 조선사람답게 살려면 말과 행동, 옷차림, 먹는것과 쓰는 물건 등에서 우리의것을 잘 살리고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학생은 어떻게 노력하고있습니까? 자기의 생활을 실례로 들면서 5문장이상 되게 결의도 담아 써보세요.



1. 다음의 단어들을 바로 읽고 써보세요.
   원한, 뒤늦게나마, 빚돈, 어긋나지 않게, 귀박죽을, 발길질, 증오, 시꺼멓게
2. 다음말들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억울하다, 하소연하다, 비참하다
3. 《발길》처럼 《～길》과 합쳐진 단어를 5개이상 찾으세요.
4. 왜놈들의 야수성을 그린 영화나 책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해 보세요.
5. 이 과의 마지막문장을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왜놈들은 우리 나라를 빼앗고 조선사람들의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 부르게 한 가장 악독한 원쑤입니다.

동요

제 9 과

군대누나 우리 누나

백 광 명

살구나무아지우의
보름달 보면
표창휴가 받고 왔던
철이 누나 생각나요

달나라만리경
옛말애기랑
재미있게 들려주던
참 좋은 누나

해종일 농장일
도와주고도
달빛아래 수학문제
함께 푼 누나

이밤도 고지우에
솟은 예쁜 달
저 달 보며 우리 모습
그려보겠지

방실 웃는 둥근달이
암만 곱대도
우리 누나 얼굴만은
못하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아지우의, 만리경, 옛말얘기랑, 솟은, 그려보겠지

❖ 다음□안에 알맞는 글자를 넣어보세요.

표□휴가 □고□던 철이 누나 생□나요
달□아래 수학문제 함□ 푼 누나
이밤도 고지우에 □은 예□ 달
방□ □는 □근달이 암□ □대도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아지— 새로 돋아난 어린 가지.

만리경— 매우 먼데것을 볼수 있는 망원경.

❖ 무엇이 잘못되였을가요?

- 살구나무의 어린 아지우에 새가 앉았습니다.
- 만리경망원경으로는 먼곳에 있는것도 다 볼수 있습니다.

❖ 다음글을 통하여 밑줄 그은 단어의 뜻을 알아보세요.

- 《**보름달**이 떴으니까 환하지.》
  《한달중에 제일 밝고 둥근달이 떴으니까 환하지.》
- **해종일** 부지런히 축구훈련을 하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축구훈련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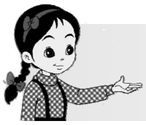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철이의 누나를 왜 《참 좋은 누나》라고 하였을가요?

❖ 이 시의 마지막련에서는 누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노래되였습니까?

❖ 이 시에서는 군대에 나간 철이의 누나를 왜 우리 누나라고 하였을가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이 동요의 1련부터 5련까지의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서 말해보세요.

❖ 조국을 튼튼히 지키는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입말로 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자기 집에서나 마을에서 군대나간 형님이나 누나에 대한 자랑을 글로 지어보세요.



1. 이 동요의 한개 련에 끊기, 높낮이, 힘주기표식을 하고 그대로 읊어보세요.

2. 다음단어들을 받아쓰기하세요.

   표창휴가, 받고왔던, 도와주고도, 달빛아래, 예쁜, 둥근달, 암만 곱대도, 못하답니다

3. 인민군대에 나가는 형님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에게 하고싶은 말을 글로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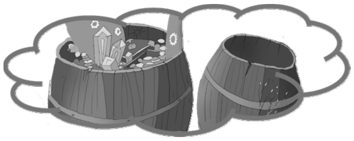
꼭 새겨두자요

인민군대는 우리모두의 친형님, 친오빠이고 친누나, 친언니입니다.

이야기

제 10 과

보물통과 빈통



(이 작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옛날옛적 어느 깊은 산골마을에 한 나무군이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나무군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은 나무군들이 오르내리다 이따금씩 큰 보물을 얻군 했다고 하여 오래전부터 보물산으로 불리워 왔습니다.

땀을 철철 흘리며 도끼질을 하던 나무군은 좀 쉬려고 큰 나무에 기대여앉았습니다. 이때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꽝 꽝 꽈르릉》 하며 벼락치는듯 한 소리가 온 골짜기를 들었다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나무군은 얼른 산꼭대기의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보물산꼭대기에서 두개의 큰 나무통이 굴러내려오는것이였습니다.

한 나무통은 바위와 나무등걸에 부딪칠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내려오고 다른 나무통은 소리없이 굴러내려오고있었습니다.

나무군은 저것이 보물통이 아닐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무군의 눈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요란한 소리를 내는 나무통에 가 멎었습

니다. 그 나무통에 틀림없이 보물이 많이 들어있을것만 같았기때문입니다. 나무통은 나무그루터기에 부딪쳐 탕탕 뛰여오르며 굴러내려오다가 무성한 칡덩굴에 걸려 멎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나무군은 그 나무통이 있는데로 갔습니다.

나무통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던 나무군은 실망하고말았습니다. 나무통은 속이 텅 비여있었던것입니다.

나무군은 다시 소리없이 굴러내려온 나무통이 있는데로 가서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나무군의 눈은 번쩍 빛났습니다. 나무통안에는 값진 보물이 가득차있었습니다.



그때에야 나무군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속에 든것이 많을수록 소리가 안 나는 법이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구나.》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옛날옛적, 깊은 산골마을, 꽈르릉, 부딪칠 때마다, 지게, 얻군했습니다, 가 멎었습니다, 틀림없이, 무릎을, 많을수록, 그렇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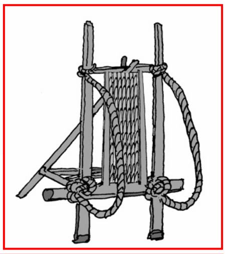
❖ 다음문장들에 끊기, 높낮이, 힘주기표식을 하고 읽어보세요.

• 이때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꽝 꽝 꽈르릉》 하며 벼락치는듯 한 소리가 온 골짜기를 들었다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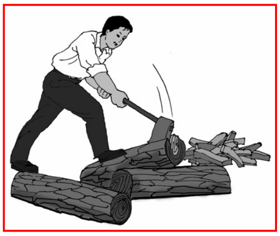
깜짝 놀란 나무군은 얼른 산꼭대기의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지게— 등에다 짐을 질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도구.



도끼— 나무를 찍거나 패는 도구.

도끼질이란 무엇일가요?

벼락치다— 소나기가 내릴 때 하늘과 땅에서 뻘건 불이 번쩍하고 《꽈르릉》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는것을 보았습니까? 벼락이란 전기를 띤 구름과 땅사이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빛이 번쩍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구름과 구름사이에 일어나는것은 번개라고 하며 이때 《꽈르릉》 하고 요란하게 나는 소리를 《우뢰》라고 합니다.



《벼락치는듯 한 소리》란 어떤 소리일가요?



나무등걸— 나무를 베여낸 밑둥.

칡덩굴— 칡+덩굴로 이루어진 말.

칡: 줄기가 길게 뻗어나가면서 자라는 풀모양의 나무.

덩굴: 길게 뻗어나가면서 다른 물건에 감기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면서 얽혀 덮이는 식물의 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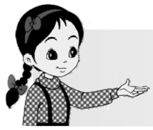
칡덩굴: 칡의 줄기가 마구 얽혀 덮인것.



내용을 알아내자요

❖ 나무군을 실망케 한 나무통은 어떻게 굴러내려왔습니까?

❖ 다른 통은 왜 소리없이 내려왔을가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두개의 나무통이 굴러내려올 때 그것을 본 나무군의 생각을 혼자말로 말해보세요.

❖ 텅텅 비여있는 나무통안을 들여다볼 때의 나무군의 생각을 혼자말로 말해보세요.

❖ 학생은 조금 아는 지식이나 작은 재간을 가지고 우쭐거려본적이 없습니까? 이 과의 내용과 결부시켜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이 과의 내용을 4개 장면의 그림으로 그리세요.

다음 매 장면에 세 문장씩 글을 짓되 속생각도 넣어 쓰세요.



1. 이 과를 소리내여 재미있게 읽어보세요.
2. 이 과에서 합친말들을 10개 찾고 어떤 단어들이 합쳐졌는가 갈라쓰세요.

합친말

합친말이란 두개 세개 또 그이상의 단어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례: 두개로 된것— 돌다리, 국어공부

세개로 된것— 자연관찰시간, 콩우유고뿌

합친말은 꼭 단어들이 합쳐진것이여야지 그안에 토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례를 들어 《영웅형님》은 합친말이지만 《영웅인 형님》은 합친말이 아닙니다.

3. 《벼락치듯》처럼 《듯》이 붙은 단어를 10개이상 찾아보세요.

4. 속담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에 담겨있는 뜻을 세 문장으로 써보세요.

5. 이 과의 마지막문장을 글씨쓰기규범에 맞게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머리에 든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머리가 텅 빈 사람일수록 우쭐대기 좋아하고 큰소리를 잘 치는 법입니다.

이야기

제 11 과

돌탑의 구리종

어느해 봄날이였습니다.

어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묘향산의 보현사를 돌아보시였습니다.

앞마당에는 층마다 작은 구리종들이 매달린 큰 돌탑이 서있었습니다.

돌탑의 구리종은 맑은 날인데도 봄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며 여러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돌탑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였습니다.

《구리종소리가 그럴듯 합니다. 몇개나 되는데 저렇게 맑은 소리를 냅니까?》

뒤따르던 사람들은 저마다 구리종을 먼저 세여보겠다고 덤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탑을 따라 돌아가면서 세여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하며 세여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한참 세여나가다가 셈이 섞갈리여 처음부터 다시 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섯살 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뜻 나서시며 큰소리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구리종은 모두 104개입니다.》

《104개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알아냈는가고 하시였습니다.

《한층에 8개씩인데 13층이니 104개가 틀림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침없는 말씀에 구리종을 세고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몹시 기뻐하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뛰여나게 총명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우러러보았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쓰면서 발음을 익히세요.

묘향산 보현사, 앞마당, 맑은 날인데도, 가볍게 흔들리며, 몇개나, 저렇게, 맑은 소리, 섞갈리여, 뜻밖에도, 틀림없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세요.

섞갈리다	그 무엇에든 걸리거나 막히지 않다.
틀림없다	매우 똑똑하고 령리하다.
거침없다	틀리지 않고 꼭 맞다.
총명하다	알수 없게 한데 뒤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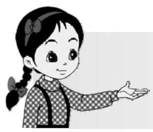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과에는 어떠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아래물음에 대답하세요.

- 작은 구리종들이 매달린 돌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 사람들은 구리종을 어떻게 세여보았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리종이 104개라는것을 어떻게 제꺽 알아맞추시였습니까?

❖ 그러면 이 과의 내용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을가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학생은 이 과를 배우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 위대한 장군님은 뛰여나게 총명하신분이시라는것을 또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 알수 있습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문장부호

문장부호란 문장에서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치는 기호를 말합니다.

인용표 《 》,　　거듭인용표 〈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제목을 그대로 쓸 때 그 문장의 앞뒤에 갈라 칩니다. 인용표를 친 문장속에 또 다른 인용표를 쳐야 할 경우에는 거듭인용표를 칩니다.

례: 《할아버지, 오늘 국어시간에 우리는 이야기글 〈돌탑의 구리종〉을 배웠어요.》

물음표 ?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의 뒤에 칩니다.

례: 《이번 학과경연에서 5점을 맞았니?》

점 .

하나의 문장이 완전히 끝났을 때 문장의 오른쪽아래에 찍습니다.

례 : 수업종이 울렸다.

❖ 학습반에서 숙제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지어보세요. 문장부호 《 》, 〈 〉, ?가 들어가게 쓰세요.



1. 《돌탑》과 같이 마지막에 《탑》이 들어간 말을 찾아보세요.

2. 다음단어들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뛰여나다, 뜻밖에, 선뜻

3. 다음문장에 알맞는 문장부호를 치세요.

   - 인민군대아저씨 안녕하십니까
   - 오늘 배운 학습제목은 돌탑의 구리종입니다
   - 철이야 오늘 아동영화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한다더라 야 정말이예요



꼭 새겨두자요

위대한 장군님은 어린시절부터 뛰여나게 총명한분이시였습니다.

동시

제 12 과

최우등생 나의 노래

김 승 도

CNC선반기들
사르릉 그 소린요
과학자 울아버지
지은 노래라나요

쏟아지는 하얀 비료
쏼쏼 그 소린요
연구사 우리 누나
지은 노래라나요

그래그래 나도야
멋진 노래 지을테다
앞날의 과학자
최우등생 나의 노래

발은야 자기 땅에
꽉 붙이고서
눈은야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꿈

왕벼알들 주렁주렁
파도치며 솨솨
강성대국 멋진 노래
나도야 지을테야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CNC선반기들, 울아버지, 쏟아지는, 쐴쐴, 앞날의, 붙이고

❖ 감정을 잡으면서 한련씩 이어읊어보세요.

맞춤법

맞춤법이란 글을 쓸 때 누구나 꼭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례를 들어 《꽃》이라는 글자를 어떤 사람은 《꼿》이라고 쓰고 또 다른 사람은 《꽂》으로 쓰면 글자를 쓴 사람과 보는 사람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춤법을 잘 지키자면 글을 쓸 때 발음과 글자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책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비료— 벼나 콩을 비롯한 식물에 영양물질을 공급해주고 땅을 걸게 하기 위하여 주는 물질.

울(아버지)— 《울》은 《우리》를 줄인 말.

강성대국— 나라의 힘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

❖ 소리를 알아맞춰보세요.

나무잎

쐬쐬 선반기

사르릉 재봉기

벼이삭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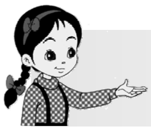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련별로 내용을 알아보세요.

❖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본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 이 시의 주인공은 앞으로 무엇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 이 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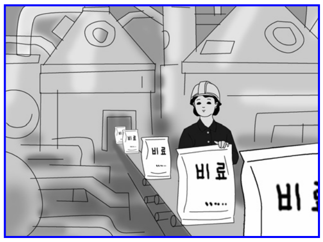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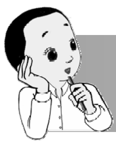
❖ 아래의 그림들을 보면서 그 내용을 자기 말로 이야기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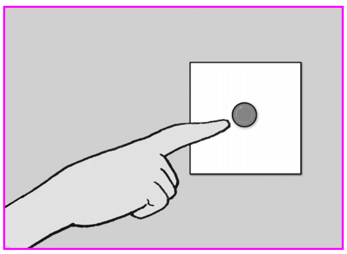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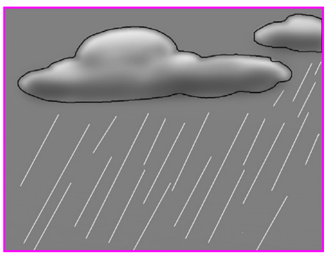
❖ 이 과를 배우면서 학생은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있는 앞날의 희망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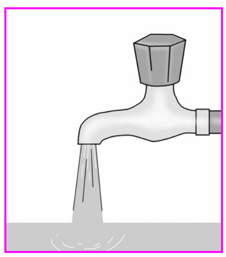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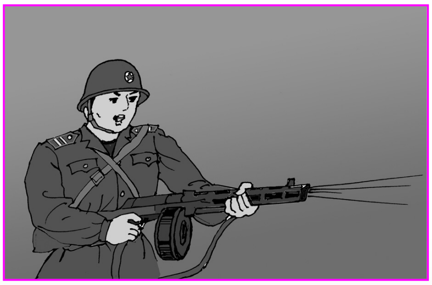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다음의 그림들을 보고 소리를 본딴 말들을 찾아 쓰세요.







자기가 찾은 본딴말들을 넣어 각각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1. 이 과의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해보세요.
2. 《과학자》로 시작하여 세 글자단어로 말꼬리잇기를 해보세요. 단어가 모두 10개 되게 하세요.



꼭 새겨두자요

학생들은 누구나 우리 나라를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성국가로 빛내이는데서 한몫 당당히 할 큰꿈을 키워야 합니다.

이야기

제 13 과

학교정문에서 있은 일

백양나무우에서 매미가 《매앰—맴》 더위경보를 울리는 무더운 여름날이였습니다. 일영이네는 하루공부가 끝나자 축구경기를 하려고 집근처에 있는 평양제1중학교로 놀러 갔습니다.

일영이네가 막 운동장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어른키만큼이나 큰 싸리비를 든 관리원아바이가 두팔을 벌리고 앞을 떡 막아서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빛에 끄슬은 해바라기씨같이 얼굴이 감숭한 일영이는 동무들앞에 한발자국 나서면서 할아버지에게 대꾸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와놀던 운동장인데 왜 할아버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이녀석, 안된다면 안되는줄 알고 돌아가거라!》

할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을러멨습니다.

《소학교 학생들이라고 너무 깔보지 마세요. 씨,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로 여기면서…》

성미 급한 일영이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고집스러운 염소처럼 딱 버지르고섰습니다. 여러명의 애들은 벌써 저쪽에 밀려나 할아버지를 향해 공중을 톱질하듯 팔질을 하며 생각나는대로 고아댑니다.

《뚝바우, 고집불통!》

이때 평양제1중학교에서 공부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학교정문으로 다가오시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시였습니다. 방금전까지도 볼이 부어 벅작대던 아이들은 앞다투어 달려와 장군님께 인사드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웬일인가고 하시는 장군님의 물으심에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릴수 없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다가와

장군님께 말씀올렸습니다.

《이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 장난을 하기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들 야단치지 않습니까.》

일영이는 불만이 어린 눈길로 아바이를 힐끔힐끔 곁눈질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연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잠시 이들을 둘러보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아이들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며 자기의 할아버지와 같은 관리원아바이를 례절있게 대하면서 사연을 잘 이야기하여야지 웃어른들에게 그렇게 대들어서는 안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아바이에게 이 학생들이 버릇없이 논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아바이가 학교를 잘 지키겠다고 하신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놀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는것이 좋지 않습니까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을 들여보내는것이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아바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아바이의 눈가에 비꼈던 노기는 사라지고 어느덧 너그러운 빛이 어리였습니다. 아바이를 바라보는 일영이네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긋방긋 웃음이 피여오르는 아이들의 이쁜 얼굴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서 들어가자고 하시면서 아바이가 동무들을 들여보내지 않은것은 동무들과 같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장난을 하기때문이다, 동무들이 상스러운 말까지 써가면서 대들면 아바이의 마음인들 얼마나 아프겠는가, 동무들이 오늘 아바이에게 한 말과 행동은 소년단원답지 못한것이다, 앞으로는 동무들속에서 오늘과 같은 행동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정히 타이르시고는 학교청사안으로 들어가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유쾌한 웃음꽃을 함뿍 피워올리며 학교운동장으로 와—

달려갔습니다. 이날 일영이네는 신바람나게 한바탕 축구경기를 한 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그후부터 관리원아바이는 언제 만나도 례절을 깍듯이 지킬줄 아는 이들을 기쁘게 맞이해주군 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부릅뜨다, 웬일, 선뜻, 밝은, 눈가에, 방긋방긋, 앞으로는, 웃음꽃을, 깍듯이

❖ 다음단어들의 쓰기에서 옳은것을 찾아 ○표식을 하세요.

집근처	신바람나게	성미급한
집군처	심빠람나게	성미굽한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근처— 가까운 곳.

철부지— 철이 들지 않은 사람.

못마땅하다— 불만스럽게 여기다.

불만— 좋지 않게 여기는 마음.

곁눈질— 앞으로 바로 보지 않고 눈알만 옆으로 굴리면서 보는것.

노기— 성이 난 기색.

너그럽다— 남을 생각해주는데서 아주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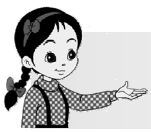
상스럽다— 말이나 행동이 막되고 점잖지 못하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점들을 일깨워주셨습니까?

❖ 이날 학생들은 자기들의 행동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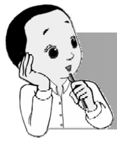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위대한 장군님께서 관리원아바이에게 학생들을 학교운동장에 들여보내자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장군님은 어떤분이시라고 생각했습니까?

❖ 학생은 웃사람들에게 버릇없이 말하거나 행동한적이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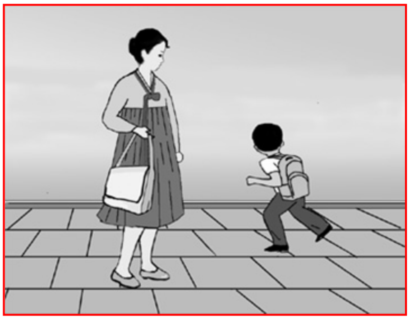
❖ 웃사람을 대할 때 왜 례절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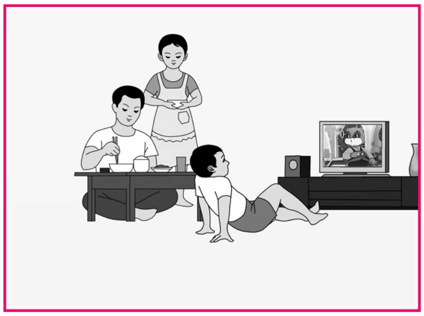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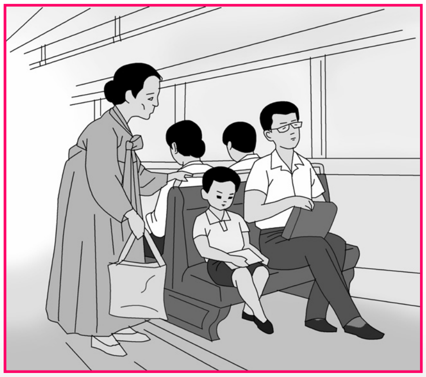
❖ 《유쾌하다》를 가지고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자기 집이나 마을, 뻐스안에서 례절을 잘 지키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글을 지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정문》에서 시작하여 한글자씩 늘어나면서 마지막단어가 여섯 글자로 되게 말꼬리잇기를 해보세요.
2. 《말버릇》처럼 세 글자로 되여있으면서 《말》과 합쳐진 말을

5개이상 찾아보세요.

3. 다음말들을 띄여쓰기에 맞게 써보세요.

놀러갔습니다. 소학교학생, 못 마땅하게여기다, 늘쌍놀군하던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말 띄여쓰기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말들은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은 다음과 같이 띄여씁니다.

❖《3천 2백 12》와 같이 쓸 때는 매 자리마다 띄여씁니다.

❖ 《두 소년단원》, 《한 간호원》, 《학생 9명》과 같이 쓸 때에는 앞뒤말을 띄여씁니다.

❖ 《6.6절》, 《아홉살》, 《여섯돐》, 《50명》과 같이 쓸 때에는 붙여씁니다.

- 2천 9백 38, 8천 3백 50, 6천 백 15
- 세 소녀, 다섯 소년, 두 영웅, 네 학급
- 5.1절, 일곱살, 다섯명



꼭 새겨두자요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절있게 대하는것은 우리 학생들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입니다.

민화

제 14 과

청개구리이야기



옛날도 먼 옛날 어느 풀언덕밑에 자그마한 집 한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엄마청개구리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답니다. 청개구리는 어려서부터 엄마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개울아래쪽에 있는 풀밭에 가서 놀라고 하면 웃쪽 풀숲에 가서 놀고 산에 가서 놀라고 하면 시내가에 가서 놀고 이리로 오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집에서 일을 하자고 하면 밖에 나가 빈둥거리군 하였습니다. 어느날 엄마청개구리는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타일러주었습니다.

《애야, 넌 아직 개구리소리를 서툴게 내더라. 그러니 소리공부를 잘해야 해. 자, 내 말을 따라 해라. 개굴개굴… 개굴개굴…》

그러자 아들은 《굴개굴개… 굴개굴개…》 하고 거꾸로 따라외웠습니다. 엄마청개구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이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 애야, 네가 내 속을 자꾸 태우면 이 엄마는 병이 나서 죽는다, 죽어.》

그래도 아들청개구리는 엄마말을 들은척만척 했습니다. 이렇게 속만 태우니 엄마청개구리는 정말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해서 미음 한술 못 들고 앓던 엄마청개구리가 하루는 머리맡에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엄마는 아무래도 더 살지 못할것 같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산기슭에 묻지 말고 시내가에 묻어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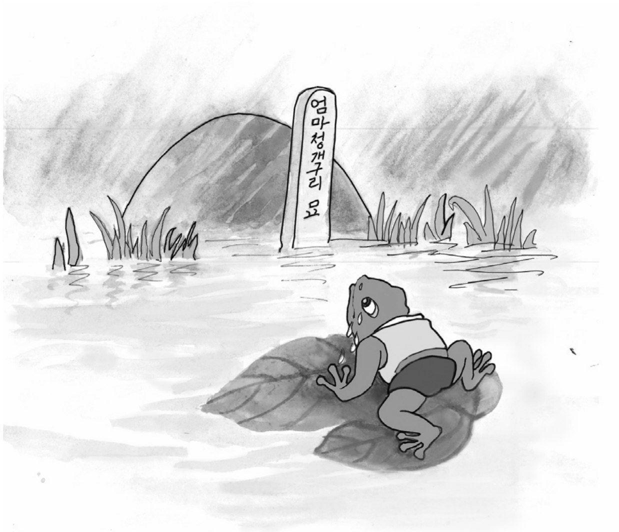
엄마청개구리는 아들이 아무리 타일러줘도 말을 듣지 않고 거꾸로만 하였기때문에 자기를 시내가에 묻으라고 하면 산에다 묻을줄 알고 이런 부탁을 한것이랍니다. 엄마청개구리는 눈물이 글썽해서 아들을

한참동안 지켜보더니 조용히 두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아들청개구리는 눈앞이 아뜩해졌습니다.

《엄마, 엄마, 난 엄마가 미워서 그런건 아니야. 엄마말 안 듣는 나쁜 버릇이 붙어서 그런거야. 이젠 안 그럴게. 어서 눈을 떠… 눈을 떠…》

그러나 엄마청개구리는 꼭 감은 두눈을 다시는 뜨지 못했습니다. 아들청개구리는 엉엉 울면서 제 잘못을 깊이깊이 뉘우쳤습니다.

(난 여태 엄마말을 거꾸로만 들었지. 엄마의 마지막부탁만이라도 들어줄테야.)



뒤늦게야 제 잘못을 깨달은 아들청개구리는 돌아간 엄마를 산기슭에 묻지 않고 시내가에 묻었습니다. 아들청개구리는 흙을 꽁꽁 다져 엄마무덤을 만들고 파란 잔디랑 하얀 꽃도 떠다 심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이면 여간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시내물이 불어서 엄마무덤이 떠내려갈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청개구리는 장마철이 오면 《개굴개굴》하며 슬피슬피 울군 한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풀언덕밑에, 하나밖에, 풀숲에, 밖에, 앉혀놓고, 기가 막혔습니다, 속상해서, 머리맡에, 시내가에, 뒤늦게야, 자칫하면

❖ 이 과에서 엄마청개구리와 아들청개구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을 두명씩 짝을 무어 실지 말하는것처럼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장마철— 여러날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는 때.
　우리 나라의 장마철은 대체로 7～8월입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개울— 흐르는 작은 물줄기.

빈둥거리다— 하는 일이 없이 놀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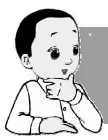
기가 막히다— 너무 뜻밖이여서 뭐라고 말할수 없다.

미음— 쌀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푹 끓여서 채에 밭아낸 걸죽한 음식.

머리맡— 누운 사람의 머리가 있는쪽.

시내가— 시내물이 흐르는 옆이나 가까이에 있는 땅.

무덤— 죽은 사람을 묻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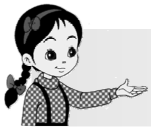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엄마청개구리는 왜 병이 나서 죽게 되였습니까?

❖ 엄마청개구리는 시내가에 묻으면 물에 떠내려갈줄 알면서도 왜

자기를 거기에 묻으라고 하였습니까?

❖ 아들청개구리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것은 어느때입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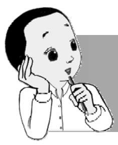
❖ 다음장면들을 따라내려가면서 이 과의 내용을 재미있게 말해보세요.



❖ 아들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였을가요?

❖ 죽으면서까지 아들에게 거꾸로 부탁해야 하는 엄마청개구리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학생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 학생은 청개구리처럼 엄마의 속을 태운적은 없었습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아뜩하다》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이 과의 뒤이야기를 더 이어서 써보세요.

큰 비에 시내물이 불었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였을가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왜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할가요? 자기 생각을 말해보세요.
2. 다음단어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서툴다, 기가 막히다, 뒤늦게
3. 눈을 감는 엄마앞에서 울면서 하는 청개구리의 말을 찾고 곱게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들어야 커서도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8과—14과)

1. 봉재에게 생겨난 원한의 상처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2. 《백두산》으로부터 《한나산》까지 7개 단어로 말꼬리잇기를 하세요.

3. 합친말을 10개씩 찾아보세요.

   례 : 두개 합친말 : 돌다리…

   세개 합친말 : 영웅소개판…

4. 《~없이》가 들어간 말을 10개 찾아보세요.

5. 어울리는 말끼리 줄을 그으세요.

빚을	내리치다
기대에	타오르다
약이	어긋나지 않다
증오가	내다
마구	오르다

6. 속담의 뜻을 말하고 그것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 빈 깡통 굴러가는 소리 더 요란하다.
-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7. 청개구리의 행동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기 속생각을 써보세요.

8. 다음의 글을 곱게 쓰세요.

   우리는 일제놈들에게 천대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들의 지난날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사

제 15 과

조선의 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가사)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내 나라
이 세상 그 어데 찾아볼수 있을가

삼천리강산에 은금보화 넘치고
반만년 력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
간악한 왜놈들 이 땅에서 내쫓고
해방의 종소리 높이높이 울리자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 조선
자유의 강산에 우리 주권 세우자
슬기론 인민이 살아가는 내 나라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자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아침의, 해빛이, 불렀네, 귀하고, 찾아볼수, 삼천리, 은금보화, 내쫓고, 높이높이, 주권, 슬기론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삼천리강산— 우리 나라를 이르는 말. 우리 나라는 북쪽끝에서부터 남쪽끝까지의 길이가 3천리나 됩니다.

은금보화— 은과 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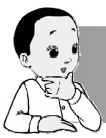
반만년력사— 5천년에 이르는 오랜 나날.

간악하다— 매우 교활하고 악독하다.

지주— 많은 땅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농민들을 착취하여 놀고먹는 놈.

자유의 강산—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도 억눌리거나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

슬기롭다— 무엇을 빨리 깨닫고 좋은 방도를 잘 생각해내는 재간이 많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련별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졌는가 찾아보세요.

1련 : 우리 나라의 이름을 왜 《조선》이라고 불렀습니까?

• 3행과 4행에서는 무엇에 대하여 노래하고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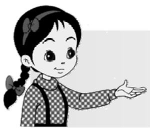
• 1련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세요.

2련: 1, 2행은 각각 어떤 뜻을 담고있습니까?

• 2련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세요.

3련: 매 행은 각각 어떤 뜻을 담고있습니까?

❖ 이 과의 내용을 묶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우리 나라를 왜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할수 있을가요? 우리 나라의 이름과 결부하여 말해보세요.

❖ 우리 나라를 왜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수 있을가요?

• 우리 나라의 산과 바다, 땅속보물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 우리 나라의 사계절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 간악한 왜놈들은 왜 우리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였을가요?

❖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나라를 누가 굳게 지키고 빛내여나가야 할가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슬기》를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아름다운 우리 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어보세요.



1. 우리 나라가 해방된 날은 언제입니까?
2. 해방의 종소리 높이높이 울리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 《슬기》처럼 두 글자이면서 앞에 《ㄹ》받침이 오고 뒤에 《기》자로 된 단어들을 5개이상 찾아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이 세상 그 어데서도 찾아볼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가꾸어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이야기

제 16 과
곰동산과 토끼동산



(이 작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먼 옛날 어느 한 곳에 아름다운 토끼동산과 곰동산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내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은 곰들이 사는 곰동산이고 저쪽 산은 토끼들이 사는 토끼동산이였습니다.

귀엽고 부지런한 토끼들은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봄이 오면 여러가지 꽃과 나무들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골바닥개울가에 돌담도 쌓고 산사태가 날만 한 곳에는 울짱도 쳤습니다. 날이 갈수록 토끼동산은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되여갔습니다.





그러나 곰동산의 나무들은 날이 갈수록 한그루 또 한그루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잎을 모조리 갉아먹어서 죽는가 하면 비바람에 뿌리채 뽑히워 죽기도 했습니다. 곰들은 힘자랑을 하느라고 집뒤에 있는 나무들을 뽑아 휭휭 내두르다가 휙 던졌습니다. 몇해 못 가서 숲이 무성하던 곰동산은 벌거숭이로 되고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하늘에 먹장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오리바람이 불어대고 나무잎이며 마른나무가지들이 하늘높이 날아

올랐습니다. 온 골안에 물안개가 뽀얗게 피여오르고 뻘건 흙탕물이 콸콸 사품치며 흘렀습니다. 비는 온종일 내리고 다음날도 그냥 내렸습니다. 산이 패이고 돌이 굴러내렸습니다.

토끼동산에서는 산마루에서 굴러내리던 돌들이 얼마 못 내려와서 나무에 걸리고말았습니다.

그러나 곰동산마루에서 굴러내리기 시작한 돌들은 나무 몇대 없는 펀펀한 산을 거침없이 굴러내렸습니다. 그 돌들은 이쪽저쪽 부딪치면서 다른 돌까지 굴려놓았습니다. 굴러내리는 돌은 백, 천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백, 천이 굴러내리는 앞에서는 바위돌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앞에서는 아름드리나무도 벋쳐내지 못했습니다.



드디여 곰동산에 사태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곰들의 아우성이 들렸습니다.

돌과 흙, 바위와 나무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여 골바닥을 메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골바닥을 흐르던 흙탕물이 빠지지 못하고 맴돌아치며 불어올랐습니다.

산사태에 묻히지 않았던 몇채 안되는 곰네 집들이 이번에는 물에 둥둥 떴습니다. 곰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비는 다음날에야 멎었습니다. 토끼들은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푸른 나무들이 무성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옛날, 쌓고, 잎을, 갉아먹어서, 뽑히워, 몇해, 숲이, 회오리바람, 나무잎이며, 물안개가, 뽀얗게, 흙탕물이, 사품치며, 패이고, 거침없이, 번쳐내다, 뒤죽박죽이, 묻히지 않았던

❖ 다음문장을 끊기, 높낮이, 힘주기표식대로 읽어보세요.

- 온 골안에/ 물안개가 뽀얗게 피여오르고/ 뻘건 흙탕물이/ 콸콸 사품치며/ 흘렀습니다.///
- 산사태에 묻히지 않았던/ 몇채 안되는 곰네 집들이/ 이번에는 물에 둥둥 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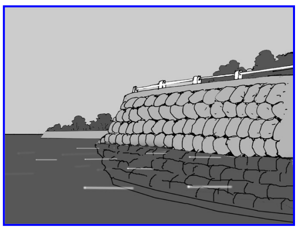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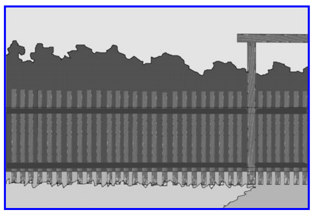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면서 뜻을 알아보세요.



개울가



돌담



울짱

산사태— 산에서 돌, 흙무지 같은것이 무너져내리는것.

갉다— 이발이나 쇠붙이같이 날카로운것으로 어떤것을 박박 긁거나 문지르다.

뒤죽박죽— 마구 섞이거나 흩어져 걷잡을수 없거나 질서가 없는 상태.

(숲이) 무성하다— 나무나 풀이 잘 자라서 퍼져있다.

먹장구름— 먹을 갈아 부은것같이 시꺼먼 구름.

《구름》의 앞에 어떤 말이 올수 있을가요?

회오리바람— 세게 빙빙 돌면서 부는 바람.

《회오리바람》과 뜻같은말에는 돌개바람이 있습니다.

번쳐내다— 힘이나 기운이 세게 미치다.

아우성— 위험에 처하거나 분을 참지 못해할 때 몹시 소란스럽게 떠들거나 부르짖는 소리.



내용을 알아내자요

❖ 토끼동산은 본래부터 살기 좋은 곳이였습니까?

❖ 곰동산은 처음부터 벌거숭이동산이였습니까?

❖ 곰동산에는 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아래의 내용에서 맞는것을 찾아보세요.

- 비가 많이 왔기때문이다.
- 큰 나무들이 많지 못했기때문이다.
- 돌들이 토끼동산보다 더 많았기때문이다.
- 산에 나무를 많이 심지 않았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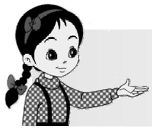
❖ 이 과의 이야기는 크게 몇개 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까? 부분별로 내용을 묶어보세요.

❖ 이 과의 이야기를 한 문장에 묶어보세요.

어떤 ____  무엇을 ____ 어떻게 하였지만 ________

어떤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가 어찌된 이야기.

_____ _____ __________ __________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산을 잘 가꾼다는것은 어떻게 한다는것입니까?
토끼들이 동산을 꾸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 산에 나무가 없이 벌거숭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곰이 동산을 가꾸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 곰들도 토끼처럼 자기들의 동산을 잘 가꾸었다면 어떻게 되였을가요?

❖ 학생은 자기가 살고있는 집과 마을, 학교의 정원이나 운동장옆에 어떤 꽃과 나무를 심어가꾸고있습니까?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곱게 쓰자요

❖ 다음단어를 글씨쓰기규범대로 세번 쓰세요.

토끼동산 가꾸었습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아우성》, 《통곡하다》와 어울려쓰이는 말들을 각각 찾아보세요.
2. 《개울가》처럼 뒤에 《가》가 붙은 말을 5개이상 찾고 그중 2개로 짧은글을 지으세요.
3. 우리 나라 속담에 《부지런한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논밭을 잘 가꾸면 나쁜 땅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많은 낟알을 거두어들일수 있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4. 꽃밭 가꾸는 날에 대한 내용으로 세 문장 되게 글을 지어보세요.

   글에 담을 내용 :

   - 어떤 꽃들이 있었는가?
   - 어떻게 가꾸었는가?
   - 어느 동무가 제일 잘 가꾸었는가?



꼭 새겨두자요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지 않으면 무더기비에 큰물이나 돌사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해설글

제 17 과

우리 나라 국화 목란꽃

목란꽃은 우리 나라의 국화입니다.

그러면 국화란 무엇일가요?

국화란 한 나라의 상징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꽃을 말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목란이라는 꽃은 함박꽃과 같이 아름다울뿐아니라 향기도 그윽하고 나무잎도 보기 좋아서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것입니다.》

목란꽃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놈들과 싸우실 때에도 늘 생각하시며 조국을 그려보시던 꽃이며 제일 사랑하시던 꽃입니다.

목란꽃이란 이름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에는 《란》자를 붙였다고 하시면서 이 꽃을 나무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에서 《목란꽃》이라고 부르도록 하시고 우리 나라의 국화로 정해주시였습니다.



이처럼 목란꽃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서 활짝 피여나게 되였습니다.

목란꽃은 꽃이 매우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열매도 맺고

사는 힘도 강합니다.

목란꽃나무는 보통 6～10m정도 자랍니다.

나무껍질은 재빛이 도는 흰색이고 매끈매끈합니다. 어린 가지에는 연한 밤색의 털이 있습니다. 잎은 어긋맞게 붙고 두터운데 넓으면서도 길둥글게 생겼습니다. 잎아래는 좁으며 웃부분은 퍼져서 넓습니다. 잎앞면은 풀색이고 매끈하며 뒤면은 희읍스름한 풀색입니다.

꽃은 5～6월에 핍니다. 나무가지 맨끝에 크고 희디흰 꽃들이 활짝 피여날 때면 독특한 향기를 풍기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줍니다.

꽃이 지면 적자색을 띤 열매가 달립니다. 긴 닭알모양의 쪽꼬투리 열매는 가을까지 달려있어 나무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줍니다.

조선의 꽃 목란꽃은 오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발자취가 어리여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공원과 유원지들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그윽한 향기를 한껏 풍기며 하얗게 피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목란꽃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에 영원히 뿌리내리고 더욱 활짝 꽃펴날것입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붙였다고, 맺고, 어긋맞게, 넓습니다, 잎앞면은, 희읍스름한, 닭알모양의, 발자취, 비롯한, 그윽한, 하얗게, 활짝

❖ 다음문장에 끊기표식을 하고 그대로 읽어보세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에는 《란》자를 붙였다고 하시면서 이 꽃을 나무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에서 **《목란꽃》**이라고 부르도록 하시고 우리 나라의 국화로 정해주시였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상징— 그 무엇에 대하여 다른 이름을 빌어 표현하는것.

《국화는 한 나라의 상징으로 되는 꽃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가요?

어긋맞다— 서로 어긋나게 마주 있다.

희읍스름하다— 빛갈이 맑지 않고 조금 희다.

쪽꼬투리열매—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는 열매.

풍치—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경치.

❖ 다음글을 통하여 밑줄 그은 단어의 뜻을 알아보세요.

- 흰눈우에 옥이의 **발자취**가 또렷이 새겨졌다.
- 《봄향기》화장품에서는 **독특한** 향기가 풍기고있었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목란꽃》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습니까?

❖ 목란꽃의 제일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 목란꽃을 왜 조선의 꽃이라고 말합니까?

❖ 아래의 조항들에 따라 목란꽃에 대해 써보세요.

꽃의 < 모양 / 색갈
나무껍질의 < 모양 / 색갈
잎의 < 모양 / 색갈
열매의 < 모양 / 색갈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례절바른 태도를 취한다는것은 어떻게 한다는것일가요?

❖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가요?







똑똑히 듣자요

듣기는 읽기에 못지 않게 많은 지식을 얻는 과정입니다.

말을 듣는다는것은 곧 그 말속에 담겨진 내용을 듣는다는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우선 정신을 집중해서 주의깊게 들어야 합니다. 또한 례절있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바다》를 듣고 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무엇에 대하여 말하였습니까?
-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몇가지 내용으로 말하였습니까?



1. 반대되는 말끼리 줄을 그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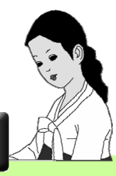
독특하다	좁다
어긋맞다	거칠다
넓다	평범하다
매끈하다	꼭 맞다

2. 다음단어들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향기롭다, 돋구다

3. 듣고 전달하기놀이를 해보세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귀속말로 옆동무에게 전달해보세요. 어느 학생이 옳게 말하는가 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우리 나라의 국화는 목란꽃입니다.

이야기

제 18 과

황금덩이와 강낭떡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사나운 황지주놈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놈의 고간마다에는 농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긁어모은 곡식과 비단필들이 그득그득했습니다.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열흘낮, 열흘밤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여 벌판이 물에 잠기고 불어난 물은 마을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급해맞은 황지주놈이 이 고간, 저 고간의 짐을 꾸리느라 뛰여다니는데 벌써 시뻘건 물이 쏴— 쏴— 소리치며 마당으로 덮쳐들었습니다.

(아이쿠, 이젠 망했구나.)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던지 후닥닥 방으로 달려간 지주놈은 금보따리를 꺼내들고 마당으로 뛰여내렸습니다.

물결은 지주놈의 가슴을 쳤습니다. 허우적거리며 대문을 나선 황지주놈은 세찬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가다가 동구밖에 서있는 버드나무에 간신히 기여오르게 되였습니다. 지주놈이 넋을 잃고 마을쪽을 바라보는데 잠간사이에 사나운 물결은 고래등같은 집을 삼켜버리고말았습니다.

(쫄딱 망했구나… 흥, 그래두 이것만 있으면야…)

지주놈은 금보따리를 꽉 그러안았습니다. 이때 가까이에 서있는 높은 느티나무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니, 자네 갑돌이 애비 아닌가?》
《예.》
갑돌이 아버지는 황지주네 땅을 얻어부치는 가난한 소작인이였습니다.
어느새 밤이 지나고 날이 훤히 밝아왔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나무가지에 걸어두었던 꾸레미에서 누런 덩어리 한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보게, 그게 뭔가?》
《강낭떡이웨다.》
《어리석기 짝이 없군, 기껏 가져왔다는게 먹지두 못할 그런걸…》
지주놈은 금보따리를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갑돌이 아버지는 강낭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주놈은 마른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그까짓 강낭떡? 이제 이 금덩이에서 밥도 떡도 나오고 고기도 나올걸.)



또 하루밤이 지났습니다. 황지주놈은 배가 고프다못해 쓰리고 아팠습니다. 눈을 감으면 집에서 처먹던 기름진 음식들이 자꾸 눈앞에 얼른거렸습니다. 배에서는 쪼르륵소리가 나고 정신이 핑핑 돌아갔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강낭떡을 또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안 보는척 하던 지주놈이 문뜩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갑돌이 애비, 좀 남은게 없나? 맛이나 좀 보세.》
《흥, 언젠 못 먹을거라구 하더니… 어림도 없소.》
배가죽이 등에 붙은 지주놈은 제일 작은 금덩이를 꺼내들고 강낭떡과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따위 금덩이는 내게 소용없수다.》

《소용없다니? 작아서 그러나?》
지주놈은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 하나를 더 꺼내들었습니다.
《글쎄 난 강낭떡이 제일이란데두요.》
《그럼 세개를 주지.》
《싫소!》



비는 계속 내리는데 바람까지 세찼습니다. 지주놈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 사람, 그럼 이걸 다 줄테니 제발 반쪽만이라두 주게나.》
그러나 갑돌이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금보따리를 통채로 내밀던 지주놈은 손맥이 풀려 황금덩이들을 몽땅 물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야, 내 금덩이, 금덩이…》



정신없이 금덩이를 잡으려고 두손을 내젓다가 그만 물속에 풍덩 빠진 지주놈은 다시는 물우로 솟아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비가 멎더니 동켠 하늘이 훤히 밝아왔습니다. 온벌에 차넘쳤던 물이 점점 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갑돌이 아버지는 황지주놈이 올라가있던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혼자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금덩이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도 강낭떡은 사람을 살렸구나.》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긁어모은, 그득그득, 급해맞은, 쏟아져내리여, 시뻘건, 허우적거리다, 휘말려, 넋을 잃고, 쫄딱, 느티나무, 얻어부치는, 밝아왔습니다, 꾸레미, 쪼르륵, 배가죽이, 싫소, 내젓다가

❖ 이 과에 나오는 갑돌이 아버지와 지주놈의 대화를 생동하게 읽어보세요. 대화란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이 서로 하는 말입니다. 대화는 인물의 성격에 맞는 말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례: 《그따위 금덩이는 내게 소용없수다.》

이 대화는 황금에 눈이 어두운 지주놈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갑돌이 아버지의 굳세고 깨끗한 마음씨가 잘 드러나도록 깊은소리로 무게있게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비단필— 비단: 명주실로 아름답게 짠 천.
필: 천을 리용하기 편리할만큼씩 감은것.

동구밖— 마을로 드나드는 첫머리의 밖.

인기척—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하는 소리.

소작인—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

꾸레미— 물건을 보자기에 싼것.

벌— 논과 밭이 펼쳐져있는 넓은 들.

고간— 무엇을 넣어두고 보관하기 위해 지은 작은 집.

❖ 다음의 표현들을 보고 (　)안에 뜻을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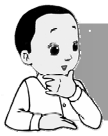
- **넋을 잃고 바라보다.** (정신없이 멍하니 바라보다.)
- **고래등같은 집** (　　　　　　　　　)
- **마른침을 꿀떡 삼키다.** (　　　　　　　　　)
- **배가죽이 등에 붙다.** (　　　　　　　　　)

❖ 다음문장에서 밑줄 그은 단어와 뜻같은말을 찾아 □안에 넣으세요.

후닥닥 뛰여내렸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안에서 쪼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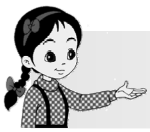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황지주놈은 어떤 놈입니까?

❖ 갑돌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 황금덩이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죽고마는 황지주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묻는 말에 대답하기

우리는 생활과정에 서로 묻고 대답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을 잘해야 서로의 생각을 정확히 알수 있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질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먼저 묻는 말을 똑똑히 해야 합니다.

물어보는 말은 정확한 발음으로 앞뒤가 맞게 똑똑히 해야 합니다. 또한 묻는 말에 소리를 높이거나 힘을 주는 방법으로 강조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답하는 말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묻는 말을 정확히 듣고 그 내용에 꼭 알맞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하는 말은 물어본 사람이 정확히 알아듣도록 천천히 해야 하며 말끝은 얼버무리지 말고 똑똑히 맺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을 때와 대답할 때의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어볼 때에는 상대방이 비록 아래사람이라도 겸손한 태도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대답할 때에는 손가락이나 턱으로 가리키면서 말하거나 《몰라.》 하는 식으로 단마디로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웃사람이 물을 때에는 《예.》, 《아닙니다.》라고 존경하는 말차림을 지켜야 합니다.

❖ 두명씩 짝을 무어 서로 묻고 대답하는 말을 해보세요.

- 동무에게 재미나는 그림책이 생겼을 때.
- 오후에 학급에서 조직되는 일에 대해 알려고 할 때.
- 도서관에 가서 새책을 빌리려고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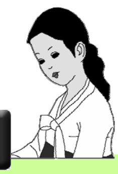
곱게 쓰자요

《여보게, 그게 뭔가?》
(그까짓 강냉떡?)
《싫소!》 (아이쿠,
이젠 망했구나.)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이 과의 이야기를 배우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자기 생활과 결부하여 말해보세요.
2. 갑돌이 아버지가 지주놈의 황금덩이와 강낭떡을 바꾸었더라면 그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였을가요?
3. 다음표현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 고래등같은 기와집
   - 마른침을 꿀떡 삼키다



꼭 새겨두자요

황금에만 눈이 어두워 욕심을 부리면 죽음밖에 차례지지 않습니다.

동화

제 19 과

맴매가 따온 수박

박 상 용

한 산골마을에 흰눈이라고 부르는 양과 맴매라고 부르는 염소, 누렁이라고 부르는 소가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뒤산에 올라갔던 맴매는 수박넝쿨에서 수박 한통을 땄습니다.

(이거 먹음직한데.)

그 자리에서 수박을 쪼개먹으려던 맴매는 문득 흰눈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무더위에 더워서 헉헉하는 흰눈이한테 줘야지.)

맴매는 수박을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흰눈이가 집에 있었습니다.

《흰눈아, 무던히 덥겠구나. 자, 이걸 먹어. 시원할거야.》

《야! 맛있겠는데. 너두 같이 먹자꾸나.》

맴매는 자기는 먹었다 하면서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수박을 들고 군침을 삼키던 흰눈이는 누렁이가 생각났습니다.

(누렁이가 나보다 더 더워할거야. 늘 밖에 나가서 수고하는 누렁이한테 줘야지.)

흰눈이는 수박을 박우물에 넣어두고 누렁이를 기다렸습니다. 저녁때가 되여서야 누렁이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누렁아, 더워서 뻐근하겠구나. 자, 수박을 먹어. 난 먼저 먹었어.》

《허허, 내가 뭘 하는게 있다구. 가만두었다가 요새 입맛이 없어하는 맴매한테 주자꾸나. 옳지, 맴매가 마침 들어오는구나.》

마당에 들어서던 맴매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아니？》

누렁이가 맴매에게 말했습니다.

《맴매야, 이거 마침 수박이 생겼구나. 우린 먹구 이건 네 몫으로 내놓은거다. 어서 먹어라.》

《누렁아, 고맙긴 한데 사실 이건 내가 가져왔던거야.》

《그래？ 허허허… 그러구보니 우린 모두가 거짓말을 했구나.》

《하하하…》

그들은 수박을 세몫으로 꼭같이 나누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꿀보다 달게 샘물보다 시원하게 호호하하 웃으며 즐겁게 먹었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수박넝쿨, 문득, 헉헉하는, 줘야지, 맛있겠는데, 같이, 빼근하겠구나, 입맛이, 없어하는, 옳지, 네 몫으로, 거짓말을

이어읽기와 끊어읽기

이어읽기란 문장안에서 일부 단어들을 서로 이어서 련달아 읽는것을 말하며 끊어읽기란 문장안의 일부 대목에서 쉬고 다시 읽는것을 말합니다.

표식 : 이어읽기 ⌒

문장안에서 단어들을 망탕 끊어서 읽거나 반대로 망탕 붙여서 읽으면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수 없게 됩니다.

례를 들어 끊기를 잘못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됩니다.

이어읽기는 글의 내용을 보아가면서 하여야 합니다.

끊어읽기는 내용의 덩어리에 따라 합니다. 짧은끊기는 문장안에 반점이 있거나 꼭 쉬고넘어가야 하는 대목에서 하고 중간끊기는 문장안에서 제일 길게 쉬고 넘어가야 할 대목에서 하며 긴끊기는 한문장이 끝났을 때 합니다.

한 산골마을에// 흰눈이라고 부르는 양과/ 맴매라고 부르는 염소와/ 누렁이라고 부르는 소가/ 살고있었습니다. ///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군침— 입안에 도는 침.

- 군침을 삼켜본적이 있습니까? 어느때입니까?
- 본문에서 《군침》은 어떤 뜻으로 쓰이였습니까?
- 《군침》에서처럼 《군》과 합쳐진 말을 또 찾아보세요.

넝쿨— 길게 뻗어나가면서 다른 물건에 감기기도 하고 덮이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

무더위

《무더위》는 두개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는 《세다》, 《많다》라는 뜻이고 《더위》는 《더운것》이라는 뜻입니다.

박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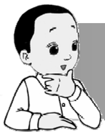
- 그림을 보고 우물과 박우물이 어떻게 다른가 찾아보세요.
- 《박우물》이란 어떤 뜻인가 자체로 써보세요.



뭊

- 그림에서 수박을 왜 세 부분으로 쪼갰을가요?
- 《뭊》이란 어떤 뜻인가를 자체로 써보세요.





내용을 알아내자요

❖ 맴매, 흰눈이, 누렁이들은 왜 수박을 남에게 주었을가요?

- 수박을 먹고싶지 않아서?
- 먼저 조금 먹어보았기때문에?
- 동무가 수박을 먹고싶어해서?
- 자기보다 동무를 먼저 생각해서?
- 동무들에게서 칭찬을 받고싶어서?

❖ 세 동무들은 왜 꼭같이 거짓말을 하였을가요? 이때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 만약 맴매가 수박을 따자마자 혼자서 먹었다면 어떻게 되였을가요? 그러면 맴매는 어떤 동무가 됩니까?

❖ 흰눈이는 왜 수박을 박우물에 넣어두었을가요? 여기서 흰눈이는 어떤 동무라고 생각됩니까?

상식

수박이 익었는가 설었는가를 어떻게 알아낼가요?

손으로 두드렸을 때 웅글은 소리가 나면 익은것이고 딱딱한 소리가 나면 선것이예요.

물에 넣었을 때 떠오르면 거의 익은것이예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수박넝쿨에서 맨 처음 수박을 땄을 때의 맴매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세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 수박을 박우물에 넣어둘 때의 흰눈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세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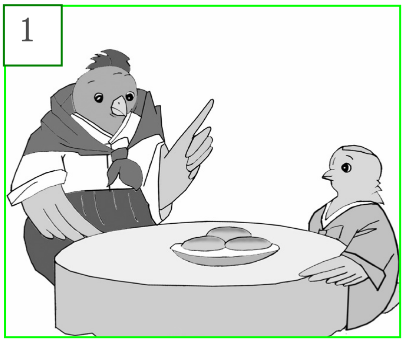
❖ 학생은 교과서에 나오는 세 동무와 같은 거짓말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자기 생활에서 있은 이야기와 대비해서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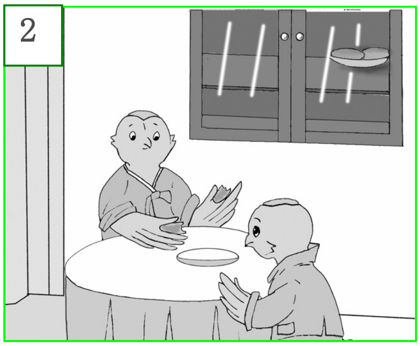
❖ 《몫》, 《거짓말》,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과의 제목을 세가지로 서로 다르게 달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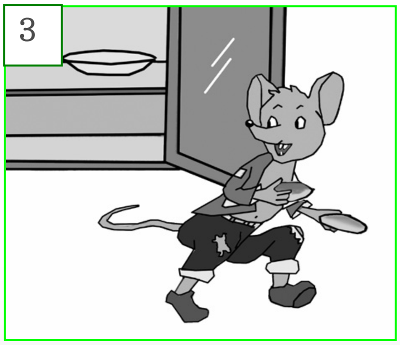
❖ 다음의 련속그림들을 보고 그림의 내용으로 글을 지으세요.

1



2



3


4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이 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보고 매 부분의 내용을 써보세요.
2. 《입맛》과 어울려 쓰이는 말들을 찾고 그중 하나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3. 《수박》과 관련된 속담을 찾고 그것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꼭 새겨두자요

자기보다 동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요

제 20 과

귀쌈을 철썩

음 혜 성

하하하 우습네 코를 꿰운 미국놈배
살금살금 우리 나라 기여들던 《푸에블로》호
살려달라 오늘도 우들우들 떠는 저 꼴
대동강도 보기 싫다 귀쌈을 철썩

우리우리 할아버지 불태워죽인 놈들
하나된 내 나라 갈라놓은 미제승냥이놈들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로 용서 못해
대동강도 못 참겠다 귀쌈을 철썩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귀쌈, 우습네, 꿰운, 우들우들, 보기 싫다, 불태워죽인, 갈라 놓은,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로, 용서 못해, 못 참겠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코를 꿰다— 끈이나 줄 같은것을 코의 한쪽구멍에 들여보내여 다른쪽으로 뽑아 련결시키다.

본문에서 《코를 꿰운 미국놈배》란 어떤 뜻으로 쓰였을가요?

❖ 다음단어들이 걷는 모양을 나타낸 말인가 떠는 모양을 나타낸 말인가 생각해보고 줄을 그으세요.

살금살금		**우들우들**
어정어정	걷는 모양	오돌오돌
엉금엉금	떠는 모양	덜덜
와들와들		발볌발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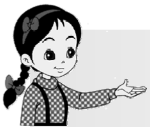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미국놈배는 누구들에게 왜 코를 꿰웠습니까?

❖ 왜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습니까?

❖ 미국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 이 동요에서 《대동강도 보기 싫다 귀쌈을 철썩》, 《대동강도 못 참겠다 귀쌈을 철썩》이라는 표현에는 누구들의 어떤 마음이 깃들어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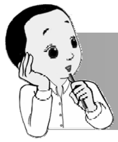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우리 나라 대동강에 기여들었던 미국침략선 《셔먼》호가 불타버린 내용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 싸움의 앞장에는 어느분께서 서시였습니까?
- 우리 인민들은 어떻게 《셔먼》호를 불태웠습니까?

❖ 《푸에블로》호를 볼 때마다 학생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철석》을 가지고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미국놈배가 우리 나라 대동강에 바줄로 묶이워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대동강이 놀려주는 말을 써넣어보세요.



1. 《살금살금》과 비슷한 말을 2개이상 찾아보세요.
2. 《꿀》과 뜻이 같은 말을 찾아 쓰고 짧은글을 지으세요.
3. 이 동요의 내용을 이야기글로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미국놈들이 우리에게 감히 덤벼든다면 반드시 《푸에블로》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5과—20과)

1. 다음합친말들은 어떤 단어들이 모여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고 그 뜻을 써보세요.

삼천리강산, 은금보화, 반만년력사, 목란꽃, 함박꽃, 닭알모양, 발자취,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금보따리, 강낭떡

2. 《시뻘겋다》처럼 앞에 《시》가 들어간 말을 5개이상 찾아보세요.

3. 어울려 쓰이는 말끼리 줄을 그으세요.

은금보화가	돋구다
울짱을	피여오르다
물안개가	잃다
풍치를	나다
피땀을	넘치다
넋을	짜내다
사태가	치다

4. 다음물음에 대답해보세요.

① 목란꽃이 새겨진것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② 목란꽃에 대한 어떤 노래를 알고있습니까?

③ 《조선》이란 이름이 빛난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④ 오늘 조선을 더욱 빛내여가시는분은 어느분이십니까?

5. 다음말들과 함께 어울려쓰이는 말들을 찾고 짧은글을 지으세요.

무덥다, 쪼개다, 시원하다, 즐겁다

6. 교실을 주인답게 관리하는 학급동무에 대해서 두 문장으로 된 글을 지어보세요.

7. 제15과를 글씨쓰기규범에 맞게 곱게 써보세요.

동화

제 21 과

금도끼와 쇠도끼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쇠돌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병으로 누워 앓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쇠돌이는 어머니를 도와 집일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다 팔아 아버지의 약도 지어왔습니다.

어느날 쇠돌이는 늪가에서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잃어버린 쇠돌이는 너무 안타까와 늪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늪가운데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안개가 피더니 그속에서 흰 수염을 길게 드리운 할아버지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쇠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손으로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애야, 너는 왜 우느냐?》

《도끼를 늪에 떨어뜨려서 웁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찾아주마.》

할아버지는 안개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후 늪속에서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가 들려있었습니다.



《애야, 이게 네 도끼냐?》

쇠돌이는 도리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예요. 제 도끼는 그렇게 좋은 도끼가 아니예요.》

할아버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희디흰 은도끼를 가지고나왔습니다.

《얘야, 그럼 이것이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니예요. 제 도끼는 쇠도끼예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오른손에 쇠도끼를 들고 왼손에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른손에 든 쇠도끼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얘야, 이것이 네 도끼냐?》

《옳아요. 할아버지, 그것이 제 도끼예요.》

쇠돌이는 기뻐서 얼른 쇠도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대견한 눈길로 쇠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정직한 애로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가져라.》



쇠돌이는 망설이다가 도끼들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쇠돌이는 할아버지에게 깊이 머리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더니 안개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앓고있었습니다, 늪가에서, 잃어버린, 주저앉아, 끓어오르고, 드리운, 솟아올랐습니다, 받아들었습니다, 정직한, 깊이

❖ 이 과에 나오는 대화들에 끊기, 높낮이, 힘주기표식을 하고 소리내여 읽어보세요.

❖ 다음말들은 읽을 때 소리가 갈습니까, 다릅니까?

늪가	앓다	솟다
늪에	앓고	솟고
늪속에	앓는	솟아
늪으로	앓으니	솟으니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부지런하다— 꾸준하고 열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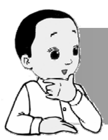
늪— 넓고 깊이 패인 땅바닥에 늘 물이 고여있는 곳.

땅바닥에 물이 가득차있는것으로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고요하다— 본문의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세요.

《고요하다》와 뜻같은말들을 찾아보세요.



내용을 알아내자요

❖ 쇠돌이는 왜 자기의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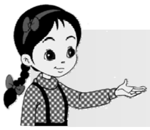
❖ 쇠돌이는 왜 쇠도끼를 보자 기뻐서 얼른 받아들었을가요?

❖ 할아버지는 쇠돌이에게 왜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주었을가요?

❖ 쇠돌이는 할아버지가 주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받았을가요?

❖ 쇠돌이는 어떤 품성을 지닌 소년입니까?

❖ 이 과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말은 아름답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문화도덕수준은 말에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자면 우선 평양말을 적극 살려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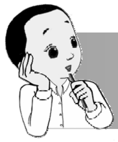
또한 말할 때의 속도를 바로 지켜야 합니다.

말은 내용이나 듣는 사람 그리고 주위환경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지만 보통 말의 가장 좋은 속도는 1분간에 250~260 자정도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자면 언어례절을 잘 알고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 쇠돌이가 금도끼, 은도끼를 자기의것이라고 했다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가요? 그뒤의 내용을 상상해보세요. 자기가 상상한 이야기를 학급동무들앞에서 말해보세요.

❖ 옆동무가 그만 실수해서 나의 필갑을 떨어뜨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그 동무와 주고받는 말을 해보세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다음련속그림들을 보고 제목을 달아 글을 지어보세요.





1. 이 과를 재미있게 읽어보세요.
2. 《고요하다, 도리질하다》의 반대되는 말을 찾아 쓰세요.
3. 다음문장들은 각각 몇개의 내용을 담고있습니까?
   - 할아버지는 대견한 눈길로 쇠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 쇠돌이는 망설이다가 도끼들을 받았습니다.
   - 할아버지는 오른손에 든 쇠도끼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4. 할아버지가 금도끼와 은도끼를 가져가라고 할 때 쇠돌이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세 문장으로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거짓을 모르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야기

제 22 과

철이가 밝혀낸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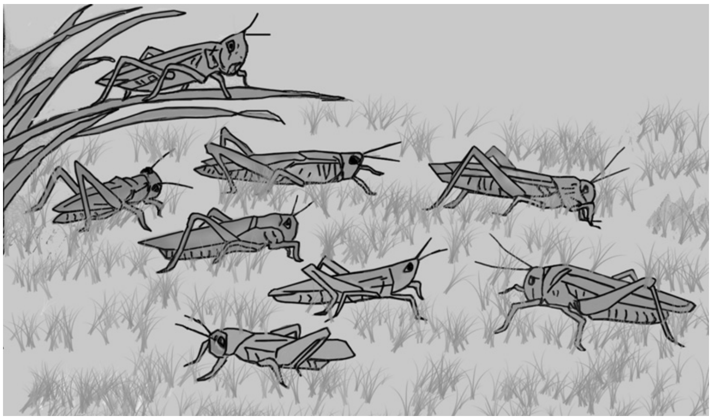
우리가 사는 주변에는 동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고많은 동물들이 다 자기딴의 보호방법이 있습니다.

어느날 장난꾸러기 철이가 풀색메뚜기와 갈색메뚜기를 꼭같은 수자로 잡아서 풀밭에다 가는 실로 매놓았습니다. 풀색메뚜기는 풀밭에서 살고 갈색메뚜기는 모래땅에서 산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풀색메뚜기수자가 퍼그나 늘어났던거예요.

웬일일가? 철이는 골똘히 생각해보았습니다. 한참만에야 철이는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발견을 했거든요.



메뚜기가 풀밭에서 살 때에는 풀색으로 변해야 다른 동물들에게 들키지 않아 잡혀먹힐 념려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래땅색갈과 꼭같이 갈색이던 메뚜기들이 풀의 색갈로 변한것입니다.

철이는 배추밭에서 잎에 붙어있는 배추청벌레가 배추색갈과 매우 비슷하게 색갈을 띠고있는것도 제꺽 그 원인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깜찍한 청개구리가 풀밭에 있으면 풀색이지만 나무잎이 깔린 땅에서는 갈색으로 변하는 원인도 밝혀냈습니다.

철이는 몸색갈이 주위의 색갈과 비슷하면 적들에게 잘 발견되지

않기때문에 동물들이 몸색갈을 변화시킴으로써 자기를 보호해나간다는 매우 큰 발견을 하였습니다.

철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에 더 많은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이 색갈뿐아니라 몸의 모양도 비슷한것으로 만들어 자기를 보호한다는것입니다.

철이는 가랑잎새의 날개 밑면이 암갈색인데 날개를 접으면 마치 가랑잎처럼 보이기때문에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는것을 손쉽게 알아냈습니다.

이뿐이 아니예요.

철이는 무당벌레가 죽는 시늉을 하고있고 또 고슴도치가 적을 만나면 마치도 가시가 촘촘히 돋은 공처럼 몸을 움츠러뜨리는것도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는것을 밝혀냈습니다.

거부기, 오징어, 낙지도 이와 다를바 없었어요. 철이는 거부기가 단단한 껍데기속에 네발과 대가리를 훅— 움츠러뜨려 자기를 보호하고 오징어와 낙지가 적에게 쫓길 때에는 적의 눈을 흐리우기 위해 먹물을 토하면서 도망친다는것도 알아냈습니다.

철이는 정말 기뻤습니다. 장난꾸러기로 소문났어도 자연의 동물들이 어떻게 몸을 보호하는가를 알아냈거든요.

철이는 아빠, 엄마에게 동물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비밀을 밝혀낸것을 자랑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밝혀낸, 많고많은, 풀밭에다, 퍼그나, 웬일일가, 골똘히, 무릎을, 들키다, 잡혀먹힐 념려, 잎에, 붙어있는, 비슷하게, 깔린, 주위의, 않기때문에, 변화시킴으로써, 껍데기, 쫓길 때에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다음글을 통하여 밑줄 그은 단어의 뜻을 알아보세요.

- 산을 잘 <u>보호하고</u> 나무를 정성껏 심어 가꾸는것은 애국심의 표현입니다.
- 돌에서 실을 뽑아 비날론이라는 천을 짜는 비밀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u>발견한</u> 학자는 우리 나라의 리승기박사입니다.

꾸러기— 《어떤 버릇이 굳어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뒤에 《꾸러기》가 붙은 말을 또 찾아보세요.

관찰— 깊은 주의를 돌려 살피는것.

배추청벌레— 배추의 연한 잎을 먹고 사는 푸른색의 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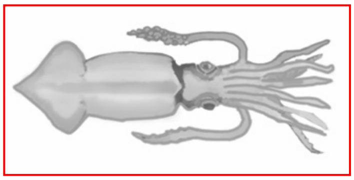
무당벌레— 몸이 둥글게 생기고 몸의 등쪽에 검은 점, 흰 점, 누런 점, 붉은 점들이 있는 딱장벌레의 한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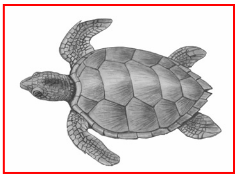
상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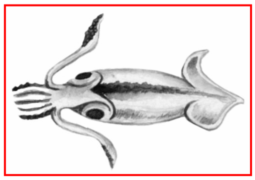
대다수의 무당벌레들은 나쁜 벌레를 잡아먹는 리로운 일을 하지만 28점무당벌레는 감자나 가지 같은 남새를 해치는 나쁜 일을 합니다.



❖ 그림을 보고 뜻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낙지


거부기


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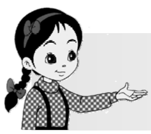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본문을 읽어보면서 다음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철이는 메뚜기를 잡아서 어떤 장난을 하였습니까?
- 철이는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까?
- 풀색메뚜기의 수자가 불어난것을 보고 철이는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 철이는 동물들이 색갈을 변화시키는것밖에 또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한다는것도 알아냈습니까?
- 철이가 자연현상을 보고 새로운 비밀을 밝혀내게 된데는 어떤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 이 과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왜 몸색갈을 변화시킬가요? 실례를 들어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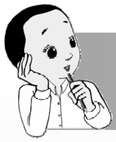
❖ 오징어와 낙지가 먹물을 터뜨리면 왜 사나운 바다동물들이 따라오지 못할가요? 그 리유를 말해보세요.

❖ 철이의 행동을 통하여 어떤 학생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 학생은 자연현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해본적이 있습니까? 학생이 밝혀낸 비밀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주위현상에 대하여 언제나 구체적으로 살펴 관찰하는 버릇을 붙여야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 학생은 앞으로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짐승이나 벌레, 꽃 같은것을 잘 살펴보고 자기가 관찰한 내용으로 글을 지어보세요.



1. 《비밀》과 함께 어울려 쓰이는 말을 찾아보세요.
2. 다음문장에서 틀린것을 찾고 바로 고쳐보세요.
   - 동물들가운데는 색갈뿐아니라 몸도 비슷한것들이 있습니다.
   - 철이는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내고 자연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였습니다.
3. 철이가 밝혀낸 비밀을 부모님들앞에서 재미있게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무엇이나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습성을 키워야 앞으로 커다란 과학의 문을 쉽게 열어나갈수 있습니다.

동요

제 23 과

신기한 안개

김 승 도

고지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
한손을 드시자 안개끼더래

야 참 신기하지 승냥이놈들
모두모두 눈뜬 소경 되였다누나

장군님 적진을 굽어보시자
안개는 가뭇없이 사라지더래

야 참 신기하지 승냥이소굴
눈앞에 펼쳐져 들장이 났대

안개몰고 다니시는 우리 장군님
정말로 하늘이 낸분이시야!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눈뜬, 굽어보시자, 가뭇없이, 승냥이, 눈앞에, 펼쳐져

❖ 이 시의 문장들에 끊기, 힘주기, 높낮이표식을 하고 두줄씩 이어읊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소경—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뜬 소경이란 무슨 말일가요?

적진— 적들의 진지. 다시말하여 적들이 모여있는 곳.

《적진》과 함께 어울려 쓰이는 말을 찾아보세요.

가뭇없이— 아무런 자리도 찾아볼수 없게 감쪽같이.

《가뭇없이》는 《사라지다》라는 말과 어울려 쓰입니다. 이 말을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들장나다— (감추거나 숨겼던것이) 다 드러나다.

《들장나다》와 뜻이 같거나 비슷한 말을 찾아 쓰세요.

❖ 이 시에는 꼭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한것이 있습니다. 어느 련에 있습니까? 두 단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을 알아내자요

❖ 고지에 안개가 끼자 미국놈들은 왜 눈뜬 소경이 되였습니까?

❖ 고지에 갑자기 끼였던 안개는 왜 또 가뭇없이 사라졌습니까?

❖ 이 동요에서 말하려는 기본내용은 어느 련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습니까?

❖ 이 동요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이 시의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 재미있게 말해보세요.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지에 오르시여 한손을 드시자 왜 안개가 끼였습니까? 아래물음을 생각하며 조리있게 말해보세요.

-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떤분이십니까?
- 안개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는 대덕산고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상 식

대덕산

대덕산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주체52(1963)년 2월에 찾으시여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해주신 곳입니다.

그때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옛날부터 싸움 잘하는 장수를 《일당백》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하나가 백을 당한다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이 구호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오늘 대덕산은 일당백의 고향으로, 승리의 함성 높이 울리는 조국의 초소로 이름떨치고있습니다.





똑똑히 듣자요

《눈사람》을 듣고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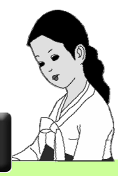
- 제목이 무엇입니까?
-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 언제 어디에서 있은 일입니까?
- 누구들이 나옵니까?
- 마지막은 어떤 내용으로 끝납니까?



1. 이 동요를 외우고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감정을 잡아 읊어보세요.
2. 다음문장에는 제자리에 놓이지 못했거나 빠진 단어들, 틀린 글자들, 토를 잘못 쓴 곳이 있습니다. 고쳐보세요.

   놈들운 모두모두 뜨고도 앞을 못 보고 소경이 대고말았습니다.

   앙개는 사라지자 승냥이소굴이 가뭇없이 들어났습니다.
3. 《들장이 나다》와 뜻같은말들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4. 이 동요의 마지막련을 곱게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장군님은 자연현상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신 하늘이 낸 위대한분이십니다.

동화

제 24 과

세 포수에 대한 이야기

어느날 세 포수가 사냥을 떠났습니다.

앞서가던 뚱뚱보포수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큰 짐승을 만나거든 힘을 합쳐 잡자구.》

《아무렴, 그렇게 하구말구.》

뒤따르던 꼬맹이포수와 키꺽다리포수가 합창이나 하듯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바위우에 앉아있는 호랑이를 보게 되였습니다.



《호랑이다!》

세 포수는 일제히 총 쏠 준비를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굉장히 큰 놈이였습니다. 그러나 셋이 한꺼번에 총을 쏘면 쉽게 잡을수 있었습니다.

뚱뚱보포수는 총을 겨누다가 생각하였습니다.

(저놈을 내가 혼자 잡으면 큰 돈을 벌겠는데…)

키꺽다리포수와 꼬맹이포수도 꼭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 포수는 누구도 총을 쏘지 않고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마침내 꼬맹이포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놈은 내가 먼저 봤으니 내가 쏘겠네.》

그러자 키꺽다리포수가 대꾸질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말이라구 하나. 저놈은 내가 먼저 봤으니 내걸세.》

이번에는 뚱뚱보포수가 발칵 성을 내며 내쏘았습니다.

《무슨 소리들이야, 저놈은 내가 먼저 봤으니 다치지 말게.》

세 포수는 서로 호랑이가 제것이라고 목청을 돋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주먹이 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포수는 서로 치고 받으며 싸움지거리하였습니다. 벌써 키꺽다리포수는 머리가 깨지고 뚱뚱보포수는 입이 찢어지고 꼬맹이 포수는 코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세 포수는 싸움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때 호랑이가 사람들이 왁작 고아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해서 조심조심 기여내려왔습니다.

세 포수는 호랑이가 다가오는것도 모르고 그냥 싸우다가 기진맥진해서 나자빠졌습니다.



호랑이는 맥없이 누워있는 포수들을 힘들이지 않고 하나하나 물어메치였습니다. 세 포수는 총 한방 쏴보지 못하고 호랑이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앞서가던, 앉아있는, 굉장히, 쏘지 않고, 봤으니, 대꾸질, 돋구었습니다, 찢어지고, 왁작, 맥없이, 쏴보지 못하고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사냥— 산이나 들에 나가서 새나 짐승을 잡는 일.

눈치(를 살피다)— 남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을 살펴서 알아내는것.

대꾸— 남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맞서는 태도로 말하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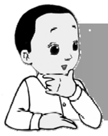
발칵— 갑자기 일이 뒤집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목청을 돋구다— 목소리를 높이다.

싸움지거리—《싸움질》을 깔보거나 업신여겨 말하는것.

❖ 다음글을 통하여 밑줄 그은 단어의 뜻을 알아보세요.

- 차가 떠날 시간이 되여 정신없이 달려온 정남이는 **기진맥진**하여 말을 못하였습니다.
- 유격대를 좇아다니다 깊고 험한 산속에서 길을 잃은 왜놈들은 **호랑이밥**이 될가봐 벌벌 떨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세 포수는 처음에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 세 포수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세 포수의 생각에서 꼭같은것은 무엇입니까?

❖ 세 포수는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 세 포수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 이 과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세 포수는 총 한방 쏴보지 못하고 호랑이밥이 되고말았습니다. 왜 호랑이밥이 되였는지 손짓, 몸짓도 하면서 조리있게 말해보세요.
❖ 세 포수가 처음약속대로 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였을가요? 그들은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을가요? 상상해보고 말해보세요.
❖ 세 포수가 싸움지거리할 때 호랑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가요? 이것도 한번 상상해서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일제히》를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그림들에 내용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기고 글을 지어보세요.





1. 《대꾸질》, 《욕질》처럼 《질》이 붙은 말을 5개이상 찾아 보세요.

2. 이 과의 내용을 네개의 련속그림에 담으려면 어떻게 매 장면의 내용을 정해야 할가요? □안에 써넣으세요.

□	□	□	□
①	②	③	④



꼭 새겨두자요

어떤 일이든 서로 마음을 합쳐야 성공할수 있지 마음을 합치지 않으면 실패하기마련입니다.

이야기

제 25 과

만경대혁명학원제복에 깃든 이야기



아카시아꽃향기가 물씬 풍겨도는 언덕길입니다.

새 학원복을 가쯘히 차려입은 갑수와 덕필이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산굽이에서 눈뿌리를 뗄줄 모릅니다.

곱슬머리인 갑수가 자름자름 풀잎을 뜯으며 덕필이에게 말했습니다.

《참, 난 어제밤 꿈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왔어.》

《그래? 그런데 난 왜 그런 꿈을 못 꾸었을가.》

《오늘은 김정숙어머님이랑 함께 꼭 오실것만 같애.》

꿈만 같은 행복에 겨워 붉은 줄을 수놓은 새 학원복을 받아입던 날 갑수에겐 백두의 풀물 오른 군복차림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처음으로 학원에 오셨던 그 일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어서 오라고, 내가 이젠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김일성**장군님께서 두팔 벌려 부르시건만 갑수네는 선뜻 달려가 안길수 없었습니다.

발가락이 삐여져나온 짚신짝들, 땀물에 삭아서 찢어진 적삼아래로 참외꼭지같이 배꼽이 횅— 드러나보이는 자기들의 주제가 말이 아니였기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리들 오라고, 나는 너희들이 헌 옷을

입었다고 나무라지 않는다고 쓰리고 아픈 마음을 달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였습니다.

그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가난에 얼룩진 눈망울들속에서 갑수의 얼굴을 얼른 알아보시고 경위중대장을 신통히도 닮았다고, 옛 전우를 다시 만난것 같다고 하시며 그의 감숭한 두볼을 뜨거이 다독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눈물로 쩌든 토스레옷을 왜놈세상의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김정숙어머님께서 보내주신 혁명의 갑옷, 조국의 군복을 떨쳐입은 이들이였습니다.

그날에 끼쳐드린 걱정이 어린 마음에도 커다란 옹이로 박혀 장해진 모습을 한시바삐 **김일성**장군님과 어머님께 보여드리고픈 생각에 다시 오실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왔던것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오신다!》

언덕길에서 울리는 갑수의 대추씨같이 여문 목소리가 파아란 교실창문들을 벌컥벌컥 열어제낍니다.

공 튀듯 달려나와, 도토리알처럼 굴러나와 엎어질듯 달음치며 마중하는 아이들은 어머님의 품에 젖먹이마냥 와락 얼굴들을 파묻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주위에 해바라기꽃잎마냥 빙 둘러싸인 갑수네를 보시며 이젠 몰라들 보겠다고 환하게 웃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바쁘신 일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못 오셨다시며 덕필이의 주름진 목달개랑 옷매무시를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학원복에 깃든 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는 알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학원을 다녀가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인차 어느 한 피복공장을 찾으시여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의 제복을 잘 만들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던것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의 유자녀들을 부모의 뜻을 잇도록 키우기 위하여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있는데 아직 학생들에게 입힐 제복이 없어 **김일성**장군님께서 몹시 가슴아파하신다고, 좋은 천으로 하루빨리 옷을 해입혀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손수 만드신 혁명학원 학생들의 제복견본을 가지고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제복의 팔소매와 바지에 띠운 붉은 줄은 혁명가유자녀들이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나갈 계승자라는것을 상징하고있습니다.…

녀학생들의 주름치마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치마형식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복을 학생들의 몸에 꼭 맞게 지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습니다.

이렇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갑수와 덕필이를 비롯한 만경대혁명가유자녀들은 깊은 뜻이 담긴 사랑의 제복을 입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충직한 새 조선의 훌륭한 역군으로 떳떳이 자라날수 있게 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가쯘히, 산굽이, 풀잎을, 뜯으며, 만나뵈왔어, 붉은 줄을, 선뜻, 발가락이, 삭아서, 찢어진, 닮았다고, 박혀, 엎어질듯

❖ 단어들의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이 과를 두 문장씩 이어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물씬— 어떤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하게 나는것을 나타내는 말. 《물씬》보다 더 심하게 날 때에는 《물씬물씬》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쯘히— 층이 없이 가지런히.

유자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 애국렬사들의 아들딸.

토벌— 총이나 칼, 포탄 같은것으로 쳐서 사람들을 모두 없애는것.

타향—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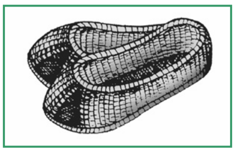
삭다— 변질되여 썩은것처럼 되다.

계승자— 이미 이루어놓은것을 이어받는 사람.

❖ 그림을 보면서 뜻을 리해하세요.



토스레옷



짚신



갑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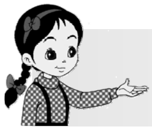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갑수와 덕필이는 아카시아꽃향기가 풍겨오는 언덕길에서 어느분을 기다리며 서있었습니까? 왜 기다렸습니까?

❖ 아이들이 공 튀듯, 엎어질듯 달음치며 나와 어머님의 품에 젖먹이마냥 얼굴들을 파묻었다는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 어머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경대혁명학원제복에는 어떤 뜻이 깃들어있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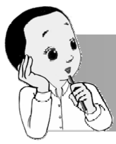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말은 앞뒤가 꼭 맞물리게 하여야 합니다. 《왜》라는 물음에 주의를 돌리면서 말해보세요.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왜 혁명학원을 세우셨을가요?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왜 여느 학교 학생들이 입는 교복과 달리 팔소매와 바지에 붉은 줄을 띠운 제복을 만드시였을가요?

❖ 학생은 이 과를 배우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다음단어들을 넣어 각각 두 문장으로 된 글을 지어보세요. 한 문장안에 7개이상의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혁명학원, 짊신, 계승자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글자를 빠뜨리거나 거듭 읽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면서 본문을 소리내여 읽어보세요.
2. 본문의 내용을 차례차례 자기 말로 이야기해보세요.
3. 다음 두 단어를 한문장에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① 희생되다, 선뜻　　② 타향, 가랑잎
4. 이 과의 첫 문장과 두번째 문장을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혁명가유자녀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 다 바쳐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의 아들딸들입니다.

이야기

제 26 과

이름난 화가 솔거

솔거는 옛날 우리 나라의 이름난 화가입니다. 솔거는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살림이 너무 가난하여 그림공부를 마음껏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붓이나 종이가 모자랐고 색감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솔거는 하루도 그림그리기를 그만두는 날이 없었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가서는 칡뿌리로 바위우에 그림을 그렸고 밭에 나가서는 호미로 땅우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솔거는 이렇게 그림공부를 열심히 하여 마침내 이름난 화가로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른아침에 새로 지은 황룡사라는 절간에서 웬 젊은 사람이 솔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솔거에게 황룡사벽에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솔거는 자기의 재능을 다 바쳐 큰 소나무를 그렸습니다. 휘우듬하게 굽은 늙은 소나무는 수백년세월을 모진 비바람속에 자라온듯 검은 껍질이 터실터실합니다. 아래로 쭉쭉 드리운 가지마다에는 이슬을 함뿍 머금은듯 새파란 솔잎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림은 정말 살아있는 소나무같았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뒤였습니다. 한무리의 새가 황룡사로 날아들었습니다. 새들은 소나무 그림을 진짜 소나무인줄 알고 저마끔 가지에 내려앉으려다가 벽에 부딪쳐 푸드득푸드득 떨어졌습니다. 뒤따르던 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은 날마다 계속되였습니다.

이때부터 솔거와 그의 그림은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그후 세월이 흐르면서 소나무그림은 눈비와 바람을 맞아 색이 바래였습니다. 이것을 아쉽게 생각한 황룡사의 사람들은 좋은 색감을 골라 소나무그림에 색칠을 다시 하였습니다. 소나무그림은 새로 그린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소나무그림에 다시는 새들이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그렇지만, 어려웠습니다, 칡뿌리로, 이렇게, 젊은 사람, 황룡사
벽에, 휘우듬하게, 늙은, 솔잎들이, 내려앉으려다, 아쉽게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넣으세요.

□가는 그림그리는것을 □아하는 사람.
□뿌리로 바□우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웬 □은 사람이 솔거를 찾아왔습니다.
솔□들이 반짝반짝 □납니다.
살아있는 소나무 □았습니다.
저마□ 가지에 내려□으려다
다시는 날아들지 □았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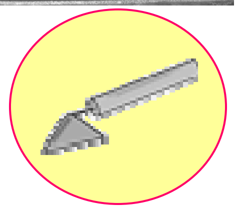


칡뿌리— 칡의 뿌리는 약으로 쓰며 먹을 수도 있습니다. 칡의 뿌리를 말리워 바위나 세멘트바닥 같은데 금을 그으면 검은밤색의 색갈이 나타납니다.



절간— 중들이 깊은 산속에 지어놓고 부처에게 빌던 집.

황룡사—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던 절간의 이름.



호미— 땅을 파고 곡식을 심거나 김을 맬 때 쓰는 작은 농기구.

재능— 어떤 일을 멋있게 할수 있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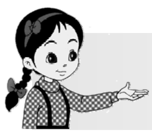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솔거는 그림공부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 솔거는 왜 칡뿌리로 또는 호미로 바위나 땅에 그림을 그렸습니까?

❖ 솔거의 재능은 언제부터 알려지게 되였습니까?

❖ 처음 솔거가 그린 그림에 새들은 왜 날아들었습니까? 솔거가 그린 그림에 다시 색칠을 하였을 때 새들은 왜 날아들지 않았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솔거는 어떻게 공부하여 이름난 화가가 되였습니까?

❖ 솔거가 그린 소나무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듯 생동하게 말해보세요.

❖ 학생은 어떤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솔거처럼 자기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있습니까?

❖ 사람이 어떤 일에서나 성공하자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똑똑히 듣자요

❖ 《남만 믿다가》를 듣고 다음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무엇에 대하여 썼습니까?
- 누구들이 나옵니까?
- 언제 어디에서 있은 일입니까?
- 어떻게 되였습니까?
- 이 글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습니까?



1. 《화가》처럼 뒤에 《가》가 붙으면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을 5개이상 찾아보세요.

2. 다음단어를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가난하다,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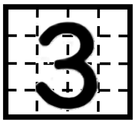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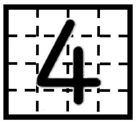
3. 본문의 내용을 크게 몇개 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까? 매 부분별로 내용을 묶어 학습장에 써보세요.

4. 다음글자들을 바로 써보세요.

- 1945년 10월 10일
- 1948년 9월 9일
- 자기의 학교, 학년반
- 자기가 사는 도, 시, 군(구역), 인민반, 층, 호

❖ 수자의 쓰기방법을 잘 알고 곱게 써보세요.

- 수자는 너비가 높이의 절반보다 조금 넓게 씁니다.

- 수자와 수자, 우리 글자와 수자가 이어질 때 그것들사이의 간격은 약간 띄여씁니다.

1932. 4. 25　　3차경연

- 우리 글자와 수자를 섞어 쓸 때 수자는 우리 글자보다 높이가 조금 작게 씁니다.

2학년 1반



꼭 새겨두자요

어떤 일에서나 곤난을 이겨내고 꾸준히 노력할 때 성공할수 있습니다.



제 27 과

얼룩곰의 겨울나이차비



가을이 오니 얼룩곰에게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겨울먹이도 마련하고 땔나무도 넉넉히 해놓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얼룩곰은 오늘도 꼭두새벽에 산으로 올랐습니다.



얼룩곰은 구멍이 난 불룩한 자루를 메고 신이 나서 고개길을 내려오고있었습니다.

이때 다람쥐가 쪼르르 달려 나오며 말하였습니다.

《곰아저씨, 곰아저씨! 도토리가 똘랑똘랑 떨어져요.》



《요것 말이냐? 고까짓 구멍에서 몇알 새겠니?》

얼룩곰은 다람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그냥 걸음을 다그쳤습니다.

얼룩곰이 산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산토끼가 깡충깡충 뛰여나오며 소리쳤어요.



《곰아저씨, 곰아저씨! 도토리가 졸졸 새나와요.》

《알고있다. 원 애두, 졸졸 새는게 얼마나 되겠다구.》

얼룩곰은 산토끼의 등을 두드려 주고는 반달음을 쳤습니다.



얼룩곰이 집이 바라보이는 언덕우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곰아저씨, 곰아저씨！》

이번에는 너구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도토리가 줄줄 쏟아져내려요.》

그렇지만 얼룩곰은 아예 들은척도 안하고 냅다 뛰여갔습니다.

(줄줄 쏟아져내려야 한두되겠지.)

집에 다달은 얼룩곰은 흘러내리는 땀을 씻으며 자루를 내려놓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홀쭉해진 자루에서 서너줌 남은 도토리가 뚝뚝 떨어지다가 마는게 아니겠어요.

그제야 얼룩곰은 빈 자루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하였습니다.

《한알, 두알 떨어지는것을 크게 여기지 않았다가 겨울나이식량을 다 잃어버렸군！》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녁녁히, 꼭두새벽, 불룩한, 몇알, 뛰여나오며, 다급하게, 그렇지만, 들은척도, 내려놓다가, 훌쭉해진, 식량, 잃어버렸군

❖ 아래의 문장에서 힘주기, 끊기표식을 하고 읽어보세요.

《곰아저씨, 곰아저씨! 도토리가 똘랑똘랑 떨어져요.》

《곰아저씨, 곰아저씨! 도토리가 졸졸 새나와요.》

《곰아저씨, 곰아저씨! 도토리가 줄줄 쏟아져내려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가을이 오니 할 일이 □아졌습니다.

땔나무도 녁녁□ 해□아야 했으니까요.

머리를 □□□어주고는 걸음을 다□□습니다.

산토끼의 등을 두□려주었습니다.

줄줄 □아져내려야 한두□겠지.

겨울나이□□을 다 □□버렸군.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녁녁하다— 다음의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 단어의 뜻을 자체로 찾아보세요.

- 겨울을 나자면 식량부터 <u>녁녁히</u> 마련해야 합니다.
- 겨울을 나자면 땔나무도 <u>녁녁히</u> 해놓아야 합니다.
- 먼길을 떠나자면 도중식사도 <u>녁녁히</u> 준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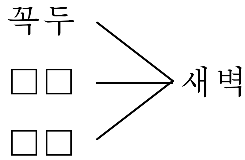
꼭두새벽—

꼭두： 맨 처음, 꼭대기.

새벽： 아침해가 뜰무렵.

《꼭두새벽》은 무슨 뜻일가요?

《새벽》의 앞에 또 어떤 단어들이 합쳐 쓰일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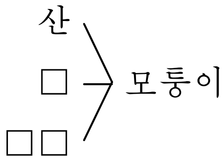


고까짓— 겨우 고만한 정도.

산모퉁이— 《모퉁이》는 《옆》 또는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산모퉁이》는 무슨 뜻일가요?

《모퉁이》의 앞에 어떤 말이 올수 있을가요?



반달음치다—

달음치다： 빨리 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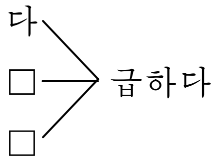
한달음：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단번에 달려가는것.

줄달음： 쉬였다 달렸다 하지 않고 계속 빨리 달리는것.

반달음： 뛰다싶이 빨리 걷는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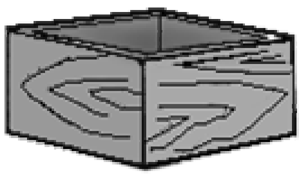
다급하다— 미처 어떻게 할 겨를이 없이 급하다.

《급하다》의 앞에 또 어떤 말이 쓰일가요?



한두되—

- 쌀이나 강냉이 같은 낟알의 량을 잴 때 쓰는 그릇을 되박이라고 합니다.
- 지난날 농촌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되박을 만들어 그것으로 낟알의 량을 재였습니다.
- 한두되란 무슨 말일가요?



❖ 아래의 단어들은 어떤 모양을 그대로 본딴 말들입니까?

쪼르르, 똘랑똘랑, 깡충깡충, 졸졸, 줄줄, 뚝뚝



내용을 알아내자요

❖ 가을이 오자 얼룩곰에게는 왜 할 일이 많아졌습니까?

❖ 얼룩곰은 다람쥐가 도토리가 똘랑똘랑 떨어진다고 알려주었는데도 왜 놀라지 않았습니까?

❖ 얼룩곰은 산토끼와 너구리가 또 도토리가 쏟아져내린다고 알려주었을 때도 왜 별로 안타까와하지 않았습니까?

❖ 다람쥐, 산토끼, 너구리들의 말에서 꼭같이 느껴지는것은 무엇입니까?

❖ 교과서의 제일 마지막문장은 어떤 뜻을 담고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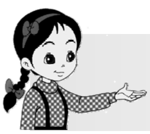
상 식

도토리나무(참나무)

높이는 약 20m입니다.

열매는 깍지열매집에 들어있는데 매우 굳습니다. 도토리열매는 그대로 먹거나 가루내여 묵이나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며 된장이나 졸임, 술도 만듭니다.

집짐승먹이로도 쓰고 물감도 만듭니다.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이 과를 배우고 학교생활과 결부하여 이야기해보세요.

❖ 작은것도 크게 여겨야 한다는 뜻을 담고있는 속담을 넣어 자기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겨울나이》라는 단어로 짧은글을 지으세요.

❖ 꽁다리연필에 대한 글감을 가지고 글을 지어보세요.

- 제목을 달고 언제, 어디서, 누구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쓰세요.
- 서로 주고받는 말도 있어야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이 과에 나오는 얼룩곰, 다람쥐, 산토끼, 너구리역을 각각 말아 읽어보세요.
2.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정도가 방울방울부터 시작하여 점차 세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본딴말을 순서대로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작은것이라고 소홀히 여기면 후에 큰것을 잃게 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21과—27과)

1. 다음물음에 대답하세요.

   ① 열동무가 밝혀낸 비밀은 어떤것입니까?

   ② 우리 나라의 이름난 과학자들이 어떤 비밀을 발견했는지 아는껏 말해보세요.

   ③ 학생은 솔거처럼 무엇을 꾸준히 노력해보았습니까?

2. 《얼룩곰의 겨울나이차비》에서 얼룩곰이 처음에 다람쥐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였을가요? 상상해서 말해보세요.

3. 《모란봉》처럼 《봉》으로 끝나는 단어를 5개이상 찾아 쓰세요.

4. 옳게 쓴것에 ○를 치세요.

다정히	고히	골똘히	가까이	겹겹이	말끔이
다정이	고이	골똘이	가까히	겹겹히	말끔히

5. 《총대》로 시작하여 한 글자씩 늘어나면서 마지막에 여섯 글자로 끝날수 있게 말꼬리잇기를 하세요.

6.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한문장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① 깁다, 깊다 ② 덞다, 덥다 ③ 짓다, 짖다 ④ 긷다, 길다

7. 자기가 선생님이나 동무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보고 두 문장 되게 글을 지어보세요.

이야기

제 28 과
제일 좋은 우리 나라

은용이네 집에 담당의사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소년신문》을 펼쳐들고있던 은용이는 어머니와 함께 의사선생님을 반겨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은용이는 꾸벅 인사를 하며 의사선생님에게 자리를 권하였습니다.

《은용인 언제 봐도 인사성이 밝다니까.》

의사선생님은 방실방실 웃으며 은용이를 칭찬해주었습니다.

방바닥에서 《우릉우릉》 땅크를 굴리며 놀던 동생은 비실비실 웃방으로 빼소니를 칩니다. 아마 선생님이 전번날 체기받았을 때처럼 따끔침을 놓으러 오신줄 아는 모양입니다. 할아버지의 왕진을 오신줄도 모르고말입니다.

선생님은 할아버지의 혈압이랑 맥박이랑 재여보고는 요전날보다 건강이 퍽 좋아졌다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약들을 내놓으십니다. 은용이는 제꺽 일어나 보온병에서 할아버지가 약을 잡술 물을 떠다드립니다. 검진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매번 수고가 많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선생님을 바래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가 인사하며 바래드리자 은용이도 따라서며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의사선생님도 눈웃음을 지으며 은용이에게 잘 있으라고 인사합니다.

방안에 들어서며 호기심어린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던 은용이가 묻습니다.

《어머니, 신문을 보니까 다른 나라에선 치료비랑 약값이랑 굉장히 비싸서 돈없는 사람들은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데 우리 약값은 누가 내나요？》

어머니는 상글상글 웃으며 은용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누가 내긴, 나라에서 다 내주지.》

《그럼 우린 그저 인사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구, 어찌 그뿐이겠니? 학교에 가도 무료교육, 병원에 가도 무상치료, 집을 받아도 무상혜택, 세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사회주의제도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단다. 제일 좋은 내 나라를 더 잘 받들자면 공부를 잘해야 한단다. 알겠니?》

《알겠어요, 어머니.》

은용이의 까만 눈은 새로운 결심으로 더욱 빛났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담당의사선생님, 권하였습니다, 밝다니까, 뺑소니, 혈압이랑, 끝나자, 많다며, 눈웃음을, 있으라고, 약값이랑, 굉장히, 못한다는데, 그렇지 않구, 그뿐이겠니, 빛났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무료
무상 } — 돈을 내지 않는다는 뜻.

따끔침—

침: 몸의 일정한 자리에 찔러서 병을 치료하는 바늘 비슷한것.

따끔침: 침을 맞을 때 《따끔》 하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생동하게 나타낸 말.

비실비실— 슬슬 에돌면서 눈치를 보는 모양.

뺑소니치다— 몸을 빼여 달아나다.

왕진— 의사가 환자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치료해주는것.

검진— 몸에 병이 없는가 알아보는것.

눈웃음— 눈으로 가볍게 짓는 웃음.

호기심— 이상하고 특별한것에 끌리는 마음.

치료비— 치료를 받은데 대하여 내는 돈.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과는 무엇에 대해서 쓴 글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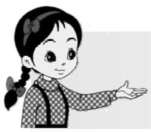
❖ 교과서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음물음에 대답하세요.

담당의사선생님은 왜 찾아왔습니까?

의사선생님이 돌아간 다음 은용이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말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치료비와 약값을 누가 냅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치료비와 약값을 누가 냅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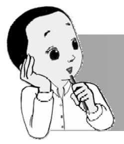
❖ 우리 나라를 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까? 아래의 내용별로 자기 집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서 알기 쉽게 말해보세요.

무료교육, 무상치료

❖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는 왜 사람들에게서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병치료도 해주고 공부도 할수 있게 하고있을가요?

❖ 이렇듯 살기 좋은 나라를 어느분께서 세워주시였습니까?

❖ 이 과를 배우면서 학생은 어떤 결심을 다지게 됩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옮겨짓기

옮겨짓기란 남이 쓴 글을 보거나 듣고 그 내용을 자기 글로 옮겨서 쓰는것을 말합니다.

옮겨짓기에는 원문내용을 그대로 옮겨짓기, 간단히 옮겨짓기, 내용이나 글형태를 바꾸어 옮겨짓기가 있습니다.

옮겨짓기를 하려면
우선 원문을 구체적으로 보거나 2~3번 읽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다음 체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글로 씁니다.
그다음 내용이 빠지거나 틀린것이 없는가를 살펴봅니다.

❖ 《왕진》과 《검진》이 한문장안에 들어가게 짧은글을 지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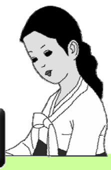
❖ 《철이가 준 연필》에 대한 옮겨짓기를 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에서 은용이의 행동을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은용이는 어떤 품성을 가진 학생입니까? 그것을 어느 대목에서 찾아볼수 있습니까?
2. 본문에서 나오는 《방실방실》, 《상글상글》처럼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들을 5개이상 찾아보세요.
3. 다음문장에는 몇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 문장을 갈라서 두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어떤 점을 지켜야 할가요?

   은용이는 꾸벅 인사를 하며 의사선생님에게 자리를 권하였습니다.



꼭 새겨두자요

우리 나라는 돈 한푼 받지 않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 29 과

일곱마리의 새끼염소

어느 숲속에 어미염소가 일곱마리의 새끼염소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날 엄마는 장에 가면서 새끼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얘들아, 요즘 승냥이가 마을을 싸다니는데 조심해야 한다. 그놈은 목이 쉬고 손이 꺼멓단다.》

엄마는 떠나가고 새끼염소들은 대문을 꽁꽁 걸고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승냥이가 이들의 말을 엿듣고있다가 엄마가 사라지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문을 열어라. 어머니다. 너희들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아니예요.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맑은 소리인데 당신의 목소리는 쉬였어요.》하고 새끼염소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승냥이는 농장의 닭우리에 들어가 닭알 한꾸레미를 먹고 목소리를 맑게 하였습니다.



《얘들아, 문을 열어라. 어머니가 왔다. 너희들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아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예요. 우리 어머니의 손은 흰 손이예요.》

새끼염소들은 대문안으로 들이민 승냥이의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승냥이는 성이 머리끝까지 올라 방아간에 있는 여우에게 부탁하여 손에 밀가루를 하얗게 칠하고 다시 새끼염소들을 찾아갔습니다.

흰 손을 본 새끼염소들은 정말 어미염소인줄로 알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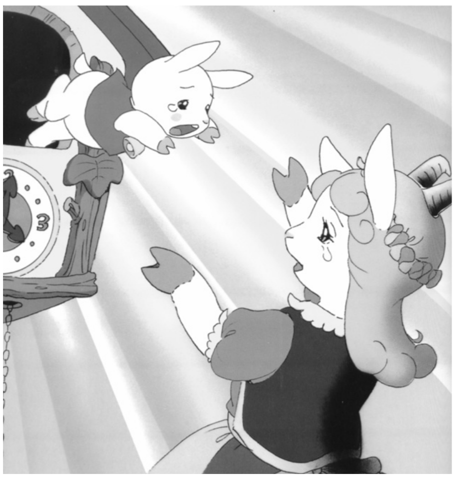
《앗! 승냥이놈이로구나!》



새끼염소들은 소리를 치면서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한마리는 침대밑에, 한마리는 옷장에 그리고 다른 새끼염소들도 책상밑에, 아궁안에, 시계통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승냥이놈은 한마리씩 찾아내여 통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계통속에 숨은 새끼염소만은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배가 뚱뚱해진 승냥이놈은 자려고 숲속에 있는 나무밑으로 갔습니다.

장마당에서 돌아온 어미염소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애들아! 애들아! 승냥이놈이 다 잡아먹었구나. 아이 이 일을 어쩌나.》



이때 시계통속에 숨어있던 새끼염소가 뛰여나오며 자기만은 잡아먹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승냥이놈을 찾아가자.》

어미염소는 바느질감이 들어있는 광주리에서 가위, 바늘을 찾아들고 새끼염소와 함께 숲속으로 갔습니다. 승냥이놈은 숲속에서 뚱뚱한 배를 그리안고 쿨쿨 코를 골며 자고있었습니다.



어미염소는 살금살금 발끝으로 승냥이에게 다가가 가지고온 가위로 쭉 승냥이 배를 쨌습니다. 그랬더니 여섯마리의 새끼염소가 차례로 모두 뛰여나와 어미염소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어미염소는 새끼염소들에게 큰 돌멩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어미염소는 새끼들이 가지고온 돌을 승냥이 배속에 잡아넣은 다음 배가죽을 조심스럽게 기워놓았습니다.

얼마후 잠에서 깨여난 승냥이놈은 목이 말라 무거운 배를 철철 끌면서 물마시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몸을 앞으로 내미는 순간 돌이 쏠리여 우물속에 빠지고말았습니다. 우물은 간악한 승냥이놈을 꿀깍 삼켜버렸습니다.

(다른 나라 작품)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숲속, 꺼멓단다, 엿듣고, 닭우리, 맑게, 흰 손, 하얗게, 밑에, 광주리, 발끝으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기워놓았습니다, 앞으로

❖ 한 문장씩 이어가면서 바로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그림이 나타내는 단어들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찾아보세요.







❖ 다음문장에서 □안에 알맞는 말을 써넣고 무엇을 생동하게 나타냈는지 말해보세요.

대문을 □□ 걸고있었습니다.

승냥이놈은 □□ 코를 골며 자고있었습니다.

가위로 □ 승냥이배를 쨌습니다.

무거운 배를 □□ 끌면서

승냥이놈을 □□ 삼켜버렸습니다.

❖ 다음말들과 뜻이 반대되는 말들을 찾아보세요.

(목소리가) **맑다**, (손이) **하얗다**, (배가) **뚱뚱하다**, (잠을) **깨다**

❖ 다음말은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이 말을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성이 머리끝까지 오르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세요.

- 승냥이는 염소들을 속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 승냥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염소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 이 과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엄마염소가 왜 승냥이의 배를 가위로 잘랐을가요?

❖ 새끼염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였을가요?

❖ 승냥이배를 갈라 새끼염소들을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였을가요?

❖ 엄마염소의 말을 엿들을 때와 잠에서 깨여나 목이 말라할 때의 승냥이의 속생각을 각각 말해보세요.

❖ 다음의 장면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서로 주고받는 말과 속생각, 행동을 보충하여 말해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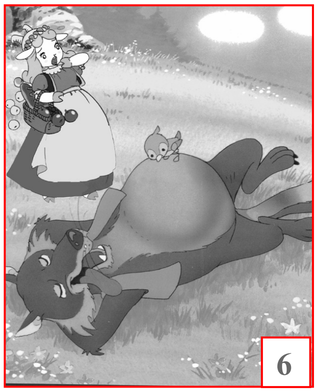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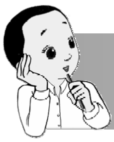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단단히》, 《엿듣다》로 각각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시계통속에 숨어있는 새끼염소의 마음은 어떠했을가요?
그 장면을 상상해보고 글을 지어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고 써도 좋습니다.



1. 본문내용을 집식구들앞에서 손짓, 몸짓을 하면서 재미있게 말해 보세요.

2. 물건을 셀 때에는 그뒤에 알맞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다음의 빈자리에 그 물건을 셀 때 붙이는 말을 써넣으세요.

   닭알 한(꾸레미), 옷 한( ), 연필 한( ), 집 열( ),
   학습장 두( ), 종이 네( ), 사과 세( ), 방 세( ),
   총 여덟( ), 학생 두( ), 나무 네( ), 밥 한( )

3. 본문에서 승냥이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새끼염소들이 저저마다 숨을 곳을 찾는 대목을 찾고 소리내여 읽으면서 곱게 한번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남잡이가 제잡이라고 남을 해치기 좋아하는 악독한 놈들은 복수를 당하기마련입니다.

우화

제 30 과

세마리의 여우

박 승 수

흉악한 여우 세마리
어느날 도적질을 떠났다네
부지런한 농부의 집에서
큰 물고기 한마리를 훔쳤다네

세마리 여우 낑낑거리며
메여내다놓고 쉬는 참에
목이 말라 누군지 하는 말
《물을 길어다 마시고 가세.》

여우 한마리 물길러 간 후
두마리 여우 소곤소곤
《저놈이 오면 죽여버리고
물고기 한마리 둘이서 나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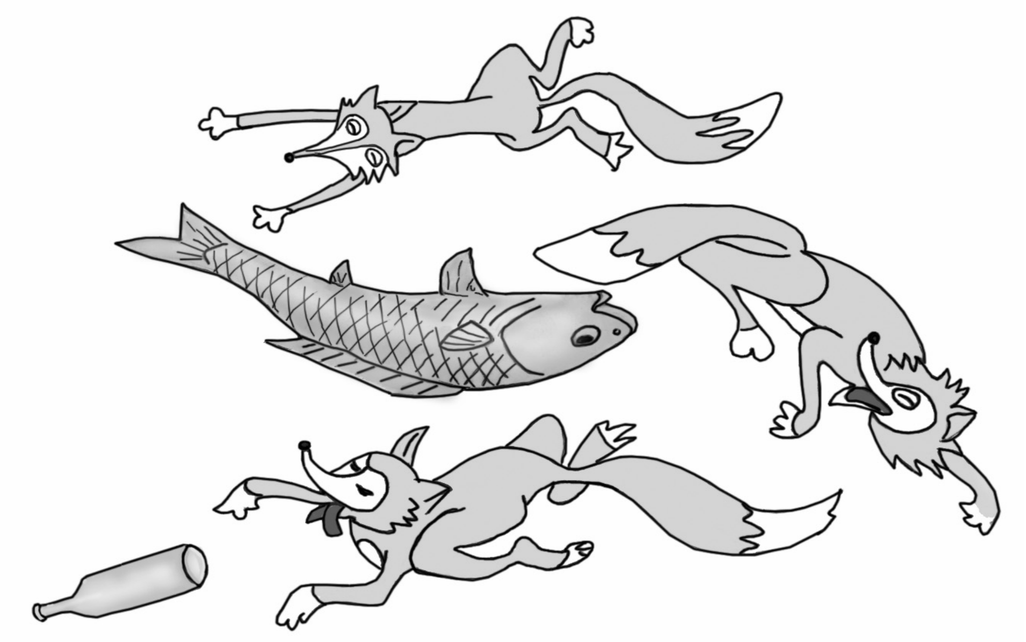


물 길어 가지고 돌아온 여우를
둘이서 달라붙어 죽여버리고
목이 말라 물을 마셨다네

그러자 갑자기 배가 아프고
입으로 피가 쏟아져나오더니
두마리 여우는 죽어버렸네

물 길러 갔던 여우도
두놈 죽이고 저 혼자 먹으려고
물에 독약을 탄줄 누가 알았으랴

흉악한자들의 최후는
바로 이렇게 되는 법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흉악한, 떠났다네, 부지런한, 메여내다놓고, 쉬는 참에, 달라붙어, 쏟아져나오더니, 마셨다네, 갑자기, 아프고, 죽어버렸네, 내다놓고

❖ 여우들의 흉악한 심보가 드러나게 본문을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세요.

흉악하다	맨 마지막.
도적질	농사를 짓는 남자.
농부	작은 목소리로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모양.
소곤소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동.
최후	마음이 매우 사납고 나쁘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농부의 집에서 물고기를 훔치는 여우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 물고기를 훔쳤을 때 세 여우의 생각은 서로 어떠했을가요?

❖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여우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 세마리 여우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 이 과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이 과의 내용을 이야기글로 써보세요. 그러되 네마리의 여우를 등장시키고 이야기를 꾸며보세요.



곱게 쓰자요

문장부호쓰기

❖ 문장부호와 글자사이, 부호들사이의 간격을 눕힌글자너비의 4분의 1정도 합니다.

동무들! (아니?!)

❖ 하나의 점으로 된 문장부호(. ,)는 글줄의 밑줄우에 놓이게 치며 그밖의 문장부호들은 부호의 중심이 글줄의 가로중심선우에 놓이게 칩니다.

6.6절, 국어, 수학,

《배움의 천리길》

❖ 물음표와 느낌표의 높이는 글자의 높이와 같게 칩니다.

동무들 앞으로!

어떻습니까?

❖ 옮김표(《》, 〈〉)의 높이는 글자높이의 4분의 3정도로 합니다.

혁명영화《조선의 별》

❖ 풀이표(—), 줄임표(…), 물결표(~)의 길이는 눕힌글자의 너비만큼 합니다.

3주—4주, 7~8분

• 문장부호의 쓰기규범을 지키면서 다음단어와 문장을 곱게 쓰세요.

선생님!

예?!

(내가 왜 몰랐을가?)

바다에는 명태, 이면수, 칼치 등 고기가 많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어푸어푸…》

7시—8시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찡찡거리다》에서처럼 《거리다》가 붙은 말을 5개이상 찾아 보세요.
2. 세마리의 여우들에게서 꼭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두가지로 말해보세요.
3. 다음단어들을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흉악하다, 소곤소곤
4. 이 과에서 세마리 여우들이 서로 속으로 하는 생각을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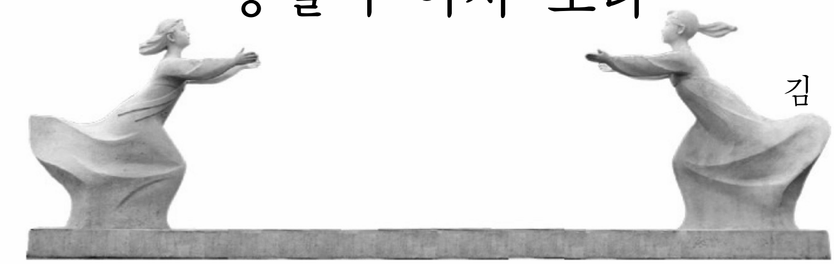
꼭 새겨두자요

심보가 사납고 고약한 놈들은 제가 먼저 죽기마련입니다.

동요

제 31 과

통일아 어서 오라



김 청 일

통일아 통일아
너는 그래 어데 있니
뭉게구름 피여나는
저 하늘 끝에 있니
그럼그럼 훨훨 나는
구름수레 타고오렴

남해가에 고향집을
두고 떠난 할아버지
네가 오길 기다리며
속태우신 긴긴 밤에
오리오리 검은 머리
하얀 머리 되였단다

통일아 통일아
너는 그래 왜 못 오니
하늘길이 너무 멀어
오다오다 쉬여오니
그럼그럼 더 빠른
번개수레 타고오렴

미국놈들 몰아내고
통일 오면 할아버지
나랑 함께 손목잡고
고향으로 가실적에
오리오리 하얀 머리
검은 머리 다시 된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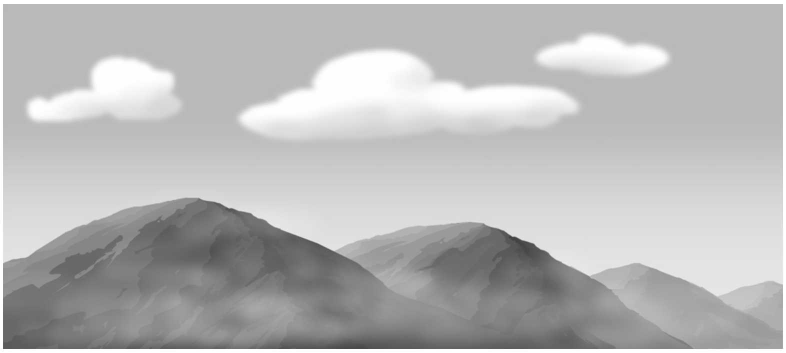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뭉게구름, 끝에, 훨훨 나는, 남해가에, 고향집을, 속태우신, 되였단다, 못 오니, 쉬여오니, 수레, 손목잡고, 다시 된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뭉게구름— 작은 구름들이 한데 뭉쳐있는것.



수레— 바퀴가 달려 굴러갈수 있게 된 짐싣는 도구.

남해— 남쪽에 있는 바다.

오리오리— 실이나 나무 같은것의 길고 가는것의 하나하나.



내용을 알아내자요

❖ 동요를 읊으면서 다음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통일이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것은 할아버지입니까,

이 시의 주인공인 할아버지의 손자입니까? 또 누구들입니까?

- 할아버지는 왜 통일이 오길 기다리며 긴긴 밤 속태우고 있을가요? 시문장에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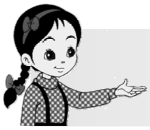
❖ 다음시문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노래되고있습니까?

그럼그럼 훨훨 나는
구름수레 타고오렴

그럼그럼 더 빠른
번개수레 타고오렴

❖ 이 동요의 4련을 속으로 읊어보세요. 누구들때문에 통일이 오지 못합니까?

❖ 이 동요에서 무엇을 어떻게 노래하였는지 시줄에서 찾아 이야기하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인사말하기

인사말이란 인사를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인사말은 사람의 인품을 높여주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여줍니다. 인사말은 서로 존중하면서 친근감이 나게 하여야 합니다.

❖ 부모님들과 웃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말

부모님들과 웃사람을 존경하는 태도는 인사말에서도 표현됩니다.

-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할아버지(할머니),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어제 밤에 늦게 들어오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잘 주무세요.》

- 기념품을 주었을 때

《고모, 정말 고마와요. 잘 쓰겠어요.》

-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거나 헤여질 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우린 먼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동무들사이에 주고받는 인사말

- 만나고 헤여질 때

《영희야, 그새 잘 있었니?》

《철남동무, 어제 머리가 아프다더니 좀 어때?》

《래일 또 만나.》

《잘 가. 안녕히.》

• 동무들을 축하하는것도 중요한 인사말의 하나입니다.

《강철이, 어제 학과경연에서 1등을 했다지. 진심으로 축하한다.》

《봄순아, 생일을 축하해.》

❖ 인사말을 해보세요.

•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에게 알려야 합니다.



• 앓아서 학교에 가지 못한 자기에게 동무가 찾아왔습니다. 병문안 온 동무에게 하는 인사말을 해보세요.

• 동무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동무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하는 인사말을 해보세요.



곱게 쓰자요

❖ 다음글자들에서 모음의 쓰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세번씩 쓰세요.

자 잘 야 얀 소 속 오 교



1. 《통일》과 함께 어울려쓰이는 말들을 찾아보세요.

2. 다음문장에는 틀린 단어와 제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찾아서 고쳐보세요.

- 이때 지구에는 개미 한개, 풀 하나, 물 한점도 없었습니다.
- 우등불은 세차게 더욱 타번졌습니다.
- 징그러운 눈사람은 왜놈장교의 상판대기갈았습니다.

3. 이 동요에서 같은 말이 두번씩 반복되여 쓰인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왜 그렇게 썼을가요? 《나왔다》는 단어가 두번씩 반복되는 문장을 지어보세요.

4. 군대에 나간 삼촌이나 형이 집에 표창휴가를 왔습니다. 처음 맞이할 때와 돌아갈 때 하는 인사말을 아는껏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놈들때문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조국으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이야기

제 32 과

향림이는 살아있다

추운 겨울 1월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도 향림이는 여느날과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영생탑주변을 알뜰히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무들과 방학숙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향림이는 새해전투로 밤늦게 돌아오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저녁준비를 해놓고 깜박 잠에 들었습니다.

꿈나라를 날으던 향림이는 그만 숨막힐듯한 연기에 눈을 떴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집안은 온통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문밖으로 급히 달려나가던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화가 떠올랐습니다.

(초상화! 한목숨 바쳐서라도 기어이 지켜내야 한다.)

향림이의 머리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이였습니다. 향림이는 불길을 헤집고 얼른 팔걸이의자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키가 모자랐습니다. 배밀이로 부엌에 나가 작은 의자 두개를 안고나와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물거리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힘겹게 의자우에 올라섰습니다.

불길이 솟구쳐 밑에서보다 더 뜨겁고 더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

초상화 한상을 모셔내오고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수건을 벗겨들고 입을 싸맸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인 연기로 하여 더는 숨을 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모아 초상화를 마저 모셔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벽장에서 담요를 꺼내 펴놓고 초상화를 정성껏 쌌습니다.

(이젠 나가야 한다. 나가야 한다.)

향림이는 안깐힘을 쓰며 담요로 싼 초상화를 품에 안고 몸을 일으켰으나 확 삼킬듯이 미쳐드는 연기에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쩌나? 그럼 초상화는?)

생명의 마지막순간이 왔다는것을 안 향림이는 초상화를 자기의 몸으로 덮었습니다.

얼마후 사람들이 향림이를 찾고찾았으나 그는 백두산장군들의 초상화를 몸으로 덮은채 그대로 굳어져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에 뜻밖에 불이 났을 때 향림이는 밖으로 달려나오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9살 어린 나이에 벌써 자기 한생을 참되게, 빛나게 살았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미산소학교 학생이였던 유향림소녀의 기특한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단원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그에게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해주시고 그가 다니던 소학교를 유향림소학교로 부르며 학교에 그의 반신상을 세우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향림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선군시대 수령결사옹위의 모범을 보여준 향림이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살아있을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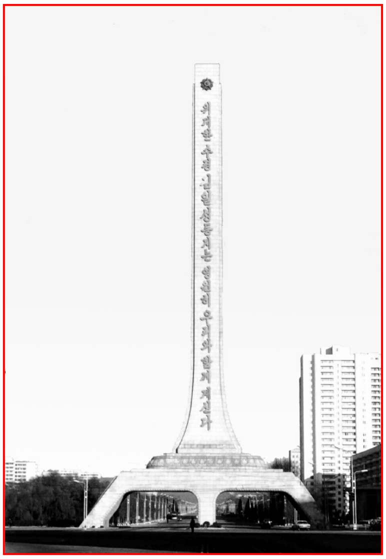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싸맸지만, 숨을 쉴수가, 펴놓고, 안깐힘을, 일으켰으나, 잃고, 쓰러졌습니다, 덮었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영생탑—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세운 탑.

반신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혁명가들, 군인들, 로동자와 농민들, 청소년학생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몸의 절반의 웃부분을 살아있을 때의 모습처럼 만들어 세운것.

❖ 다음글을 통하여 밑줄 그은 단어의 뜻을 알아보세요.

- **꿈나라를 날으던** 영호는 시계종소리에 놀라 깨여났습니다.
  꿈을 꾸던 영호는 시계종소리에 놀라 깨여났습니다.
- 정찰병아저씨는 **배밀이**를 하여 적보초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찰병아저씨는 엎드려서 배를 땅에 붙이고 기여가 적보초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남수는 정신이 **아물거리는** 속에서도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되새겨보았습니다.
  남수는 정신이 들듯말듯한 속에서도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되새겨보았습니다.
- 옥이는 **안깐힘을 썼지만** 맨앞에서 달리는 순옥이를 따라잡을수 없었습니다.
  옥이는 있는 힘을 다 모아냈지만 맨앞에서 달리는 순옥이를 따라잡을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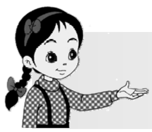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아래의 물음들에 대답해보세요.

- 향림이가 집에 불이 났다는것을 안것은 어느때입니까?
- 향림이는 처음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 향림이는 생명의 마지막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 향림이는 왜 초상화를 자기 몸으로 덮었습니까?

❖ 본문을 몇개 부분으로 가를수 있을가요? 부분별로 내용을 써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향림이는 초상화를 어떻게 지켜냈습니까?
그 부분을 자기 말로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 향림이는 밖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길을 택하였을가요?

❖ 이 과를 배우면서 학생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 우리 사회에는 유향림소녀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혁명의 수령을 보위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알고있는것을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곱게 쓰자요

김일성소년영예상

유향림소학교

향림이는 살아있다.



1. 다음단어에 어울리는 말을 찾아보세요.

가다듬다, 가까스로

2.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인 연기로 하여 더는 숨을 쉴수가 없었습니다.》에서 《활활》은 불길이 타오르는것을 실지 눈앞에 보는듯이 생동하게 나타내기 위해 쓴 단어입니다.

아래의 문장에도 같은 말이 겹쳐 쓰인 말들을 찾아넣어 생동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 수류탄이 날아갔습니다.
- 철갑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 눈덩이를 빚어 수류탄을 만들었습니다.
- 태숙이는 련락쪽지가 들어간 파를 씹어먹으며 대답하였습니다.
- 해빛이 내리쬐는 한낮입니다.

3. 다음문장에는 단어들이 틀리거나 빠진것, 문장안에서 순서가 바뀐것들이 있습니다. 찾아서 고쳐보세요.

- 나는 집식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 어느날 봄날이였습니다.
- 만세는 하늘땅 저 멀리 울려갔습니다.
- 봄이면 살구꽃이 피여나고 가을이면 복숭아꽃, 온갖 산열매들이 주렁집니다.

4. 다음단어의 뜻을 말하고 한문장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잃다—잊다,　기어이—기꺼이



꼭 새겨두자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권위를 목숨바쳐 옹호보위하는것은 우리 학생들, 우리 전체 조선인민들의 첫째가는 의무입니다.

혁명가요

제 33 과

혁명군은 왔고나

혁명군은 왔고나
우리 마을에 왔고나
붉은기 휘날리며 왔고나
혁명의 총을 메고 돌아왔고나

혁명군은 왔고나
우리 마을에 왔고나
왜놈을 쳐부시고 왔고나
승리의 노래높이 돌아왔고나

혁명군은 왔고나
우리 마을에 왔고나
우리도 어서 커서 가자야
혁명의 총을 메고 어서 가자야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혁명군은, 붉은기, 휘날리며, 돌아왔고나, 왜놈, 쳐부시고, 노래높이, 메고,

❖ 가사를 한 련씩 감정을 살려 읊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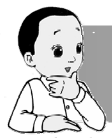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휘날리다— 《휘》와 《날리다》가 합쳐진 말.

몹시, 세게 어떤 가벼운 물건이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것.

쳐부시다— 《치다》와 《부시다》가 합쳐진 말.

승리— 싸움이나 경기 같은데서 이기는것을 가리켜 하는 말.



내용을 알아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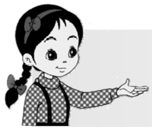
❖ 가사의 매절은 어떤 내용을 노래하고있습니까?

1절— 누구들이 어떻게 하며 돌아왔습니까?

2절— 무엇을 하고 돌아왔습니까?

3절— 《우리도 어서 커서 가자야
혁명의 총을 메고 어서 가자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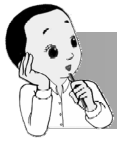
- 《우리》는 누구들입니까?
-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
- 《혁명의 총을 메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 《우리》들은 왜 혁명군대에로 가려고 합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혁명가요를 외우고 한 련씩 이야기말로 풀어 말해보세요.

❖ 어느 영화에서 어떤 혁명가요들이 나오는지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붉은기》를 가지고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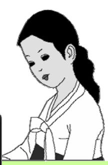
❖ 인민들을 친부모, 친형제처럼 도와주는 인민군대에 대한 자랑을 담아 제목을 달고 3개 문장의 글을 지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이 혁명가요를 외우고 소리내여 읊어보세요.
2. 이 시에서 《혁명군》이란 누구를 이르는 말입니까?
3. 다음단어들로 짧은글을 지으세요.

   붉은기, 쳐부시다
4. 이 가요의 1절을 글씨쓰기규범에 맞게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하시고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을 찬양하고 혁명군이 되려는것은 아동단원들의 굳센 마음이였습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28과—33과)

1. 수자 《3》이 들어가 나타내는 말을 5개이상 찾아쓰세요.

   례 : 삼천리금수강산

2. 다음의 말들을 높임의 말로 고치세요.

   ㄱ) 주다　ㄷ) 죽다　ㅁ) 아버지　ㅅ) 먹다　ㅈ) (누가) 있다

   ㄴ) 말하다　ㄹ) 태여나다　ㅂ) 집　ㅇ) 자다

3. 다음물음에 대답하세요.
   - 우리가 받고있는 무상치료의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제30과 《세마리의 여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 통일을 앞당기려면 학생동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향림동무처럼 9살의 어린 나이에 영생의 꽃으로 피여난 아동단원은 누구입니까?
   - 우리 군대와 인민사이에 뜨거운 정이 흐르고있는데 대하여 학생은 어떤 감동적인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4. 학생은 통일이 된 다음 커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큰소리로 말해보세요.

5. 속담의 뜻을 말하고 속담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 보석도 닦아야 빛이 난다.
   - 아는 길도 물어가라.
   - 식은 죽 먹기.
   - 민충이 쑥대올라간듯.

6. 향림이가 마지막순간에 우리 소년단원동무들에게 남기고싶었던 말을 두 문장 되게 지어보세요.

국 어

(소학교 제2학년용)

집 필 교수 박사 文재홍, 부교수 리수향, 하정순,
공훈기자 김승도, 백광명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손수옥 그 림 최경락, 리정철, 장대길,

편 성 박성혁 김순영, 신성일, 박성혁

장 정 박성혁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평양영예군인교육도서인쇄공장

인 쇄 주체101(2012)년 3월 13일 발 행 주체101(2012)년 3월 23일

교—12—보—646 값 10원